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0 시작에 앞서

### 대상별 활용 방법

앞쪽에 있는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든 정하세요. 그리고 정답 근거를 스스로 설명해보신 후, 뒤쪽의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풀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못하면서, 냅다 해설부터 보며 '음~ 이게 맞지~ 고려치 고려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이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전과 같이 맞히고 틀러가면서 본인에게 남겨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어 실력이 느는 겁니다.**

#### 중학생·고1

해당 자료로 본인이 고등 국어 '상위권'에 들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정답 근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낼 수 있다면, 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풀었는데 거의 다 틀린다거나, 해설이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국어 개념어조차도 생소하다면, 국어 공부량을 늘리고 공부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 고2

해당 자료를 풀어보며, 본인이 그간 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꼼꼼히, 잘, 해왔는지를 점검 가능합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얼추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어가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다면, 주관식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다든지, 해설지의 좋은 독해·풀이 습관은 잘 안되고 안 좋은 독해·풀이 습관만 많다든지 등 약점이 보이면, 이를 개선할 것을 목표로 국어 학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고3·N수

해당 자료로 국어 기초개념 및 기초습관이 잘 잡혀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막힘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수능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간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설을 토대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들이 수능 당일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아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자극받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10 문법

---

[지문]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문장을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짜임, 문장성분, 품사, 형태소 단위 등으로도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1. 문장의 짜임

2. 문장 성분

3. 품사-형태소

4. 단어의 개수, 어절의 개수, 음절의 개수, 음운의 개수

5. 실질형태소 개수, 형식형태소 개수, 자립형태소 개수, 의존형태소 개수

---

※ 2016년 고2 3월 모의고사 14번 문법 지문 참조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한번 더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10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1. 문장의 짜임 - **출문장**

2. 문장 성분

- (내가) ~의 ~을 어떻게 ~하였다.

-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 필수성분 주어 '내가'는 해당 문장의 발화자이므로 생략

3. 품사-형태소

- 동생 : **보통명사**

- 의 : **관형격조사** -> '동생의'가 관형어 역할

- 비상금 : 명사 어근 '비상'과 **★접미사 '금'★**으로 이루어진 **파생명사**

- 을 : **목적격조사** -> '비상금을'이 목적어 역할

- 우연히 : 명사 '우연'에 **형용사파생접미사 '-하'**가 붙어서 형용사 '우연하다'가 된 후, 형용사의 어간 '우연하-'에 **부사파생접미사 '-이**  
**or히(경쟁증)**가 붙어 부사가 됨. 부사 '우연히'가 부사어 역할

- 발견하였다 : **명사 '발견',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 어말어미 '다'**

+ '**었**'은 **형태론적 이형태**. 이형태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형태소 '하-'와 결합할 때, 연결어미 '-아/-어/-아서/-어서'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여/여서'가 쓰임.

++ 음운론적 이형태 : 앞말의 받침(음운) 유무에 따라 '이/가' '을/를'이 음운론적 이형태를 띠다든지, 앞말의 모음(음운)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모음조화)에 따라 '-아,-어' '-아서,-어서' '-았,-었-', '-아라, -어라' 등이 음운론적 이형태를 띠다든지.

4. 단어·어절·음절·음운의 개수

- 단어의 개수 **6개** : 조사도 단어입니다 + (**\*파생명사 단어의 개수를 1개로 봄**)

- 어절의 개수 **4개** : 띄어쓰기 단위, 음절의 개수 **15개**

- 음운의 개수 **34개** : 모음 앞의 첫음절 ㅇ은 음운의 개수에 포함안함 + (**\*이중모음 ㄱ, ㅋ의 음운의 개수를 1개로 봄**)

5. 실질·형식·자립·의존 형태소의 개수

- 실질 **4개**, 형식 **7개**, 자립 **4개**, 의존 **7개**

한번 더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13 문법

---

[지문]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문장을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짜임, 문장성분, 품사, 형태소 단위 등으로도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1. 문장의 짜임 분석

2. 품사-형태소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장성분 분석

3. 단어·어절·음절의·음운의 개수

4. 실질·형식·자립·의존 형태소의 개수

---

※ 2016년 고2 3월 모의고사 12번 문법 지문 참조

※ 23학년도 수능 문법의 핵심 출제경향은 바로 '쪼개서 원형파악'입니다.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등 다른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문법' 영역에서만큼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풀어서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13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정답]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 1. 문장의 짜임 분석

- ~음은 ~일이 아니다 : 주어-보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안은문장
- ① 그녀가 많이 먹다 : 명사절로 쓰여 안은문장의 주어 역할로 안긴문장
- ② 일이 새삼스럽다 : 관형절로 쓰여 안은문장의 관형어 역할로 안긴문장

### 2. 품사-형태소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장성분 분석

① '그녀가 많이 먹다.'라는 안긴문장에서,

- 그녀 : 삼인칭 대명사

- 가 : 주격조사로 대명사(품사) '그녀'가 안긴문장의 주어(문장 성분)역할을 하게 해줌.

- 많이 : 형용사 '많다'의 어간 '많-'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 '많이'가 됨. 형용사 '많-'이 아닌 부사(품사) '많이'가 안긴 문장에서 부사어(문장 성분) 역할을 함.

+ '-이'는 부사파생접미사로 봅니다. '많이'가 사전에 부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근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고(파생), 파생된 단어가 사전에 따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파생접미사로 봅니다. 물론, 형용사 '많다'의 어간에 붙었으므로 전성어미라고 보는 견해와 경쟁했던 시절도 있으므로, 아직 직접적인 출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사파생접미사로 일단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 먹음 :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이 명사형 전성어미 '-음'을 만나 명사형으로 쓰임.

+ '먹음'은 서술성이 있고, 부사어 '많이'의 수식을 받고, '먹음'이 사전에 동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명사형 전성어미'인지 '명사파생접미사'인지를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면 정답의 확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 파생접미사,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성어미

★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체언이니 명사파생접미사,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용언이니 명사형전성어미

★ 이외에도 '서술성이 있는지' '용언의 어간에 붙었는지, 용언의 어간이 아닌 다른 어근에 붙었는지'

- 은 : 보조사로 '은'으로, '먹음' 뒤에 붙어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도록 함

② '일이 새삼스럽다.'라는 안긴문장에서,

- 부사 '새삼'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스럽'이 붙어서 형용사가 된 '새삼스럽다'의 어간 '새삼스럽-'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이 붙어 안은문장의 관형어 역할로 안겨있다.

+ 어간 '새삼스럽-'의 받침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전성어미)와 만나, 반모음 ㄴ로 바뀌는 브블규칙활용

+ '일이'라고 하는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수식을 받는 안은문장의 보어 '일이'가 중복되어 생략

### 3. 단어·어절·음절의·음운 개수

- 단어의 개수 : 9개 (조사는 단어)
- 어절의 개수 : 6개 (띄어쓰기 단위)
- 음절의 개수 : 18개(글자 수)

- 음운의 개수 : 37개

+ 음운의 개수 셀 때 주의할 점

- ★ 이중모음 : 음운 개수 1개 = 반모음을 모음으로 인정 안함 (vs 인정하면 2개)
- ★ 겹자음 : 음운 개수 2개 (vs 된소리 : ㄱ, ㄷ, ㅃ, ㅆ, ㅈ는 음운 개수 1개)
- ★ 음절의 첫소리에 오는 ㅇ은 음가없는 ㅇ이므로 음운의 개수로 세지 않음

### 4. 실질·형식·자립·의존 형태소 개수

- 실질 형태소 6개
- 형식 형태소 8개
- 자립 형태소 3개
- 의존 형태소 11개

+ 형태소 셀 때 주의할 점

- ★ 실질 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형용사의 어간 = 어휘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접사, 조사, 어미 (= 문법 형태소)
- ★ 자립 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 ★ 의존 형태소 : 동사·형용사의 어간, 조사, 어미, 접사

- 보지 않고도 위 해설처럼 막힘없이 될 때까지, 5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



## #18 비문학

### [지문]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이중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다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 [문제] 진위판단

1. 소득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해 버린다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은 약화될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2.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납부액이 큰 건, 소득이 높은 만큼 공공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 정답 : (참 / 거짓)
3. 누진세 적용은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 2018년 고1 3월 모의고사 31 ~ 33번 비문학 지문 참조

## #18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진위판단

#### 1. [정답] : 거짓?

- 출제자가 '~인 경우에만 혜택 부여', '~해 버린다면'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앞 진술에 부정적 어감을 심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 진술에도 역시 부정적 어감인 '약화'를 넣었죠. 여기에 '~될 수 있다'는 겸손한 표현까지 집어넣었네요.
- > 이런 출제자의 표현 및 출제 노하우로 인해, 수험생들은 '부정적 행동을 해버리면,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매우 그럴듯하고 당연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느낌'에 흔들리지 않고 아래와 같은 '비례-반비례 관계 동어반복'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지문-지문 동어반복'을 통해 '근거를 갖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 부여(선택지) ->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 고려(4문단) -> 수평적 공평 고려(4문단) -> 능력 원칙 고려(3문단) -> 조세의 공평성 확보(2문단) -> 조세 부과 의 형평성 **강화**(2문단) (**다수론**)
- +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부과 의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공제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알기로 많이 있다 기부자 공제라든지(배경지식) 그런데 그 많은 공제 제도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공제 혜택을 여러 개 부여하다가 한 개 부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세 부과 의 공평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으므로 참이다. (**소수론**)
- > 위와 같은 논리로 참이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인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리를 쓰지 않았는데 참이라고 판단했다면 틀린 겁니다. 위 2가지 논리 모두 배워둡시다.

#### 2. [정답] : 거짓

-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소득이 높은 만큼 공공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가 지문 자체에 없습니다.
- '높다 -> 크다 -> 많다'라는 비례 관계에 낚이지 마세요. '높으면 크고 크면 많겠거니'하면서 순진하게 낚이시면 안 됩니다.

#### 3. [정답] : 참

- 누진세 시행 -> 수직적 공평 실현(3문단) -> 능력 원칙 적용(3문단) -> 공평성 확보(2문단) -> 조세 저항 감소 가능(2문단)

## #26 비문학

### [지문]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얻는 대가를 말한다.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고전경제학파의 리카도로부터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차액지대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어떤 나라의 A, B, 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옥도에 차이가 있어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생산비는 투입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쌀의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나라의 쌀 수요량이 적어서 A 지역 토지의 일부만 경작해도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A 지역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인 5만 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로 모자라 B 지역 토지도 경작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B 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한계지라 부른다. B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6만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어 쌀 한 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A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고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지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대는 결국 기존의 A 지역 토지 경작자들의 추가 소득인 1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쌀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C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고, B 지역 토지에도 지대가 형성된다. 결국 쌀의 가격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가 되고,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의 차액이 되는 것이므로, 더 열악한 땅이 한계지가 될수록 쌀 가격은 오르고 그에 따라 지대도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리카도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즉 잉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 소득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갑국은 곡물 수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곡물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그동안 쓰지 않던 척박한 땅까지 경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곡물 가격과 기존 경작지의 지대가 크게 올랐다. 이후 주변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곡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곡물 수입을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갑국의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으므로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경쟁력이 없는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카도는 자신의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 수입이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 그 손해는 지주들에게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맞섰다.

### [문제]

1. ㉡의 결과, A 지역 토지의 지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얼마씩 증가할까?

- 정답 :

2. ㉡의 이유는 무엇일까?

- 정답 :

※ 2018년 고2 3월 모의고사 33 ~ 37번 비문학 지문 참조  
+ 2023학년도 수능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4~17번 이층차분법 지문 참조

한번 더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26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주관식으로 풀기, 확장적 사고, 반대적 사고

1. [정답] :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원 더 올라 3만원이 되고, B 지역 토지의 지대 역시 2만원 올라 2만원이 된다.

\* 그냥 A 3만원, B 2만원이라고만 말하면 틀립니다. 문제는 상대적인 증가량을 물은 것이지 절대적인 최종 지대가격을 물은 것이 아니니까요. 정답을 아는데도,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완벽히 풀었는데도, 문제 조건을 놓쳐서 점수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죠. 서술형에서도 키워드 잘 썼는데 조건 놓쳐서 틀리면 바로 한 등급 내려가는 겁니다. 늘 문제 조건을 잘 확인하는 좋은 습관을 들입니다.

- 사실 이 문제는요. 문제1의 존재조차 몰랐어도, 지문을 읽다가 밑줄에서 멈추고 밑줄을 스스로 풀어보고 넘어갔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앞에서 AB 2개 토지를 가지고 지대 상승의 과정을 설명해줬잖아요. 밑줄은 이걸 ABC 3개 토지에 확장 적용해보라는 것 같구요. 출제자가 3개 토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밑줄처럼 '땅값 오르겠지~'하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로 내려고, 계산하는 문제로 내려고 철저하게 의도하고 어물쩍 넘어간 것입니다. 이 경우 지문 읽다가 멈추고 밑줄에서 A 지역 토지 지대는 얼마나 올라갔으며, B지역 토지에는 얼마의 지대가 형성되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가 애매하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따져보기. 한번 해보고 안되면 넘어가기) 자, 해봅시다.

-> 우선, A 토지 1개만 사용하다가 AB 토지 2개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대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해보아야 합니다. B지역이 한계지가 되면, 쌀 한가마니 당 가격은 6만원이 된답니다.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니 쌀 한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겠네요. 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A 토지를 경작하려는 경쟁이 일어나고, 추가소득 1만원이 결국 지대가 된다는군요. 그럼 ABC 토지 3개가 사용되어 C가 한계지가 되면 쌀 한가마니 당 가격이 8만원이 될 것이고. 그럼 A토지의 추가소득은 3만원(8 - 5), B 토지의 추가소득은 2만원(8 -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곧 지대죠.

2. [정답] : 그동안의 지대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 소득에 불과하다.

- 처음부터 끝까지, ABC 토지 예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다른 예시, 다른 이론, 다른 개념이 나와도 앞에 나왔던 ABC 토지 예시를 활용하여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독해 습관 : 확장적 사고, 앞에 나온 예시를 뒤에 나온 지문 내용 이해에까지 적극 활용하기)

-> 지문 아래 갑국의 상황은 그러니까, A만 쓰다가 곡물 수입 못해서 자체 생산하다보니 B도 쓰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곡물가격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것이고, A에 지대가 1만원 형성된 것이겠죠. 여기서 다시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가격은 5만원으로 떨어질 것이고, 1만원으로 형성되었던 지대가 없어지겠죠. 즉, 지주들이 벌던 1만원 지대만 없어지겠네요. 불로소득인 지대가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지주만 피해보겠죠.

## #30 비문학

### [지문]

조사 결과 1인 방송 콘텐츠의 조회 수가 많아질수록 제작자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1인 방송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1인 방송을 할 때 막말 등을 섞어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했더니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회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1인 방송 제작자들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 [문제]

1. 자극적인 1인 방송 콘텐츠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조회 수가 제작자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정답 : (참 / 거짓)
2. 1인 방송 규제 강화 이유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답 : (참 / 거짓)
3. 1인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1인 방송 시청자수가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정답 : (참 / 거짓)
4. 1인 방송에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려면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수 포함해야 한다.  
- 정답 : (참 / 거짓)

※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9 ~ 10번 작문 지문 참조

## #30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진위판단, 절대적vs상대적, 겸손함vs오만방자

### 1.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참

- 조회 수가 제작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선택지) = 조회 수가 많아질수록 제작자의 수익이 증가(지문)
- 자극적인 1인 방송 콘텐츠 증가(선택지) =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지문)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이 될뿐더러, '이유 중 하나'라는 겸손한 표현까지 썼으므로 참입니다. 사실 인터뷰 내용은, 고작 1인 방송 제작자 1명의 경험에서 나온 의견일 뿐입니다. 돈이 된다며, 조회 수 늘리겠다며,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는 1인 방송인분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만약 선택지 표현이 '이유 중 하나는'(상대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유는'(절대적 표현)이었다면 이 진술은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거짓인 진술이 될 겁니다. 단정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이 아닌 겸손하고 상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정답의 확신성은 떨어지더라도 참이라고 선택하셨기를 바랍니다.

### 2.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 거짓

- '규제 강화'에 대한 진술 자체가 지문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이 안되므로 거짓입니다.
- 시청자들이 '크게' 증가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가했을 수는 있겠죠, 조회 수가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나 '크게' 증가했는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가했을 수 있다'였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 3.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참

- '될 수 있다.'라는 매우 겸손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참인 선지입니다.
- 진술 내용 자체가 '나쁜 짓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구조다 보니, 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명히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참이 되는 근거인 '될 수 있다'를 가지고 판단하셨기를 바랍니다.

### 4. [정답] :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거짓

- 자극적인 콘텐츠 다수 포함(선택지) =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지문)
-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선택지) = 조회 수가 크게 늘어났다(지문)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해야 한다.'라는 오만방자한 표현,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거짓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자극적이어서 하나뿐일 리가 없죠. 조회 수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자극적인 것 말고도 다양한 이유들(트렌드, 유머, 디테일, 광고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제쳐두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말하니 참 오만방자합니다.

## #34 비문학

### [지문]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 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소비 계획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자율이  $r$ 인 경우 현재 100만 원의 가치는, 미래  $(1 + r) \times 100$ 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이를 역으로 보면, 미래  $(1 + r) \times 100$ 만 원'은 현재 100만 원의 가치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특정 금액의 가치는 이자율을 매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가치란 어떤 금액이 현재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 [문제] 진위판단

1.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상승한다.  
- 정답 : (참 / 거짓)
2.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미래 소비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상승한다.  
- 정답 : (참 / 거짓)
3.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상환해야 하는 대출액이 감소한다.  
- 정답 : (참 / 거짓)
4.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소비에 대한 현재 소비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한다.  
- 정답 : (참 / 거짓)

※ 2019년 고2 3월 모의고사 21 ~ 25번 비문학 지문 참조

## #34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진위판단, 확장적 사고, 반대적 사고 그리고 수학

[정답]

### 1. [정답] : 거짓

- '현재'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니까 '동일'하겠죠. (선택지-선택지 동어반복) 상승하니까 다 상승할거라는 초당적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 2. [정답] : 거짓

- 지문의 예시를 선택지 풀이에 활용했어야 합니다. 현재 소비 지출액을 지문처럼 100만 원으로 두고, 이와 동일한 미래 소비 지출액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100만 원이겠네요 (좋은 풀이 습관 : 확장적 사고)

- 그러면 미래 소비 지출액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을 '(1+r)'로 나눈  $\frac{100}{(1+r)}$ 이겠네요. 이항이죠.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응용력) r이 분모에 있는데 r이 커지면, 전체적으로는 작아지겠죠. 미래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는 하락합니다.

★ 곱셈·나눗셈 이항은 기초 상식입니다. 분모가 커지면, 분수 전체는 작아지는 것 역시 수학입니다. 여러분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수학도 잘 하셔야 합니다. 기초적인 수학 못하면 국어 고득점 절대 못합니다. 작년 6평 이중차분법 평행, 작년 9평 선호도·적합도 계산, 수능 L그래프 비례vs0.75제곱 비례 다 수학적 사고가 기본 바탕에 있어야 '막힘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국어에서 '막힘없이' 풀기 위해, 기초적인 수학적 사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몇 번 씩 훈련해두세요.

### 3. [정답] : 거짓

- 이거 '감소'가 틀렸다 '증가'가 맞다고 해서 풀면 잘못 푼 겁니다.

- 이자율이 변했다고 대출액(원금)을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크건 그냥 깡패아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가 상승하는 것이지 대출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초 경제 상식?) 영끌한 사람들 안그래도 대출 어차 때문에 힘든데 대출금까지 올리면 ㅈㅈ... (문제 풀이와 쓸데없는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문제로 돌아가기) 자, 웃기게 표현했지만 중요했던 건, 1문단의 '대출금vs이자'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분명 대출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표현했으니, 선택지를 풀 때도 이를 구분했어야 합니다. 대출액을 보면서 '이자 아닌가?'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라는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 4. [정답] : 참

- 지문의 예시를 선택지 풀이에 활용했어야 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미래 소비를 '(1 + r) X 100만 원', 현재 소비는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좋은 풀이 습관 : 확장적 사고), 둘의 가치가 같은 상황에서 r이 증가하면 미래 소비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현재 소비 가치는 하락하겠네요.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응용력)

+ 만약 당신이, 2번 '현재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미래 소비 지출액의 현재가치'와 4번 '미래 소비에 대한 현재 소비의 상대적 가치'는 사실상 같은 말(동어반복)인데, 상승 하락만 다른 거니까, 2번이 거짓이니 4번이 참이겠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정답을 결정했다면, 당신은 1%입니다. '동어반복'이라는 좋은 독해 습관이 바탕이 되어, 거기에 뛰어난 수학적 통찰력이 더해져, 확장적·반대적 사고를 하며 문제를 풀고 있는 1~2등급들마저도 시간상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한 이런 미친 센스를 매순간, 모든 문제에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국어에서의 좋은 습관들과 더불어 다른 과목 공부도 성실히 해나간다면, 수능 당일 이런 센스를 한 5번은 발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느 문제에서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해내는 것들입니다.

## #35 문학

---

### [지문]

강물이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가는 이 시각에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 주는 자연 속에서 나는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였다. 이 년 동안을 씻어 버리고 다시 이 짙 냄새만을 싣고 오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고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의 신화들을 배운다는 것, 우는 것을 배운다는 것, 침묵을 배운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라고 나는 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 [문제] 진위판단

1. 밑줄에서 나는 고장의 속성들을 열거하여 도시의 허영적 속성을 일깨우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 2018년 고2 3월 모의고사 38 ~ 41번 문학 지문 참조

# #35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숲과 나무, 동어반복

★ 좋은 독해 습관 : 동어반복 -> 그룹핑 -> 그룹 간 비교

- 지문을 읽는 와중에 비슷한 의미를 지닌 표현들끼리 연결하고 (동어반복)
- > 그것들을 같은 집단으로 묶고 (그룹핑)
- > 그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기 (비교)

### A그룹

- 자연 = 신비한 힘
- 씻어 버리고 : B그룹을 토해버리게 하고
- 다시 이 짝 냄새만을 싣고 오는 해풍
- 한 고장
- 충분한 만족

### B그룹

- 도시의 모든 기억  
: 토해버리게 할 생각인 것(->부정적으로 보는 듯)
- 이 년 동안 = 도시의 모든 기억
- 저 도시
- 영원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의 신화들·우는 것·침묵을 배운다는 것
-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 '그것만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밑줄은 B그룹이겠죠.
-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 위의 B그룹들은 모두 인간의 '허영'이다.

## 1. [정답] : 거짓

- 고장의 속성들이 아니라 도시의 속성들입니다.

### ★ 쪼개서 원형파악

출제자들은 맞는 진술 사이에 틀린 진술을 섞어 넣어둡니다. 이런 출제 노하우에 당하지 않도록, 선택지조차도 잘 '쪼개서' 출제요소를 디테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좀 오바하자면, 위 선택지는 4개 이상의 출제 요소가 있습니다. ①'나'가 한 게 맞나? ②'고장의 속성인가?' ③'열거했나?' ④'도시의 속성이 허영적인가?' 등입니다. '나, 속성 열거, 도시의 허영적 속성'이 다 맞다고 해서 이 진술 참이라고 판단하시면 틀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고장'이 틀렸다는 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쪼개서 원형파악이네요^^

### ★ 숲과 나무 ★

- 밑줄(나무)
- :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성공해보겠다고 도시로 몰려들던 시기다 보니, 도시는 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팽창할 것처럼 보였죠.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영원의 토대가 되는 것이구요. 현대 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성공 신화 등이 바로 의지의 신화들이겠죠. 우는 것, 침묵하는 것은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사회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들 아닐까요? 반드시 이런 해석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해석이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밑줄에 대한 해석이 막힘없이 떠올라서 밑줄만 보고도 이걸 고장 속성이 아니라 도시의 속성이라는 판단이 되면 좋겠죠. 다만, 이런 이상적 해석을 실전에서 해내기란 쉽지 않고, 시험 순간에, 모두가, 매번,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밑줄만 가지고는 도시인지 고장인지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 - 상황 맥락(숲)

: 지문 앞 뒤 상황 맥락을 따져서 밑줄이 도시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음을 파악하시는 것이 현실적 풀이 사고입니다. '그것(밑줄)만이 인간인 것이냐? = 그것(밑줄)만이 인간은 아니다'라고 뒤에 얘기하죠. 도시의 속성만이 인간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맥락상 밑줄만 가지고는 인간일 수 없다고 하니,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테고, 그러니 도시겠거니라고 추론해서라도 문제를 풀어 맞으셨기를 바랍니다.

## #36 문법

---

### [지문]

1. 싸움꾼

2. 갈림길

3. 결눈질

4. 뜨개질

###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 및 형태소 단위로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36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 [정답]

1. 싸움/꾼 : 파생명사 { 파생명사(어근+접미사) + 접미사 }

- 싸우- : 동사 어간 '싸우-'
- ㅁ : 명사 파생 접미사 '-ㅁ'

- ㅁ : 접미사 '꾼'

2. 갈림/길 : 통사적 합성명사 { (어근+접사) = 파생어(갈림) + 어근(길) }

- 가르- : 동사 '가르다'의 어간 '가르-'
- 이 : 피동접미사 '-이'
- + 르 불규칙 :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이'와 결합해 어간의 끝소리 '르'가 탈락하고 '르르' 나타남.
- ㅁ : 피동사 '갈리다'의 어간 '갈리-'에 명사형 전성어미 ㅁ이 붙어 동사의 명사형 '갈림'

- 길 : 명사 어근 '길'

3. 결눈/질 : 파생명사 { 합성명사(어근+어근) + 접미사 }

- 결 : 명사 어근.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
- 눈 : 어근
- 질 : 접미사. 질 11번째 뜻. 접사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4. 뜨개/질 : 파생명사 { 파생명사(어근+접사) + 접미사 }

- 뜨 : 동사 '뜨다'의 어간 '뜨-'
- 개 :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는 명사파생접미사 '-개'

- 질 : 접미사 '-질'

## #37 멘토링

###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좌승상을 지낸 정진희의 아들 을선과 우승상을 지낸 유한경의 딸 추연은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다. 추연의 생모는 추연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고, 유한경은 후실로 노씨를 들이게 되는데 노씨는 추연을 박대한다. 한편 을선은 장원급제하여 이부시랑이 되고 초왕으로 봉해진 아버지와 함께, 추연과 혼인하고자 유소저의 집으로 간다.

각설. 이때 노씨 매양 소저를 죽이고자 하더니, 일일은 독한 약을 음식에 넣어 소저를 주되 소저 마침 속이 불편한지라 이에 받아 유모에게 들게 하고 침소에 돌아와 먹으려 할새, 하늘의 살피심이 있어, 홀연 난데없는 바람이 일어나 티끌이 죽에 날려들거늘 소저 티끌을 건져 문밖에 버리니 푸른 불이 일어나더라. 이에 크게 놀라 유모를 불러 연유를 말하니 유모도 함께 놀라 이에 개를 불러 죽을 먹이니, 그 개 즉시 죽거늘 소저와 유모 더욱 놀라 차후는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모의 집에서 밥을 지어 수건에 싸다가 겨우 연명만 하더라. 노씨 마음에 헤오되, '약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니 가장 이상하도다.'하고 다시 해할 계교를 생각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길일이 다다르매 정시랑이 위의를 갖추어 여러 날을 행하여 유승상 집에 이르니 시랑의 풍채 전일보다 더 흰출하여 운무같은 관대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 각대를 띠었으니 천상 신선이 하강한 듯하더라.

- 작자미상, [정을선전] 중

### [문제] 진위판단

1. 유모는 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조력자다.

정답 : ( 참 / 거짓 )

※ 2014년 고3 4월 모의고사 국어 B형 34~37번 문학 지문 참조

## #37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70 vs 30

### 1. [정답] : 참

- 선택지 : '위기' = 지문 : 노씨의 독살 시도

- 선택지 : '돕는 조력자' = 지문 : '유모도 함께 놀라 이에 개를 불러 죽을 먹이니, 그 개 즉시 죽거늘 소저와 유모 더욱 놀라 차후는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모의 집에서 밥을 지어 수건에 싸다가 겨우 연명만 하더라.'

### ★ 3등급 혹은 그 이하들도 맞히는 진술을, 자기는 틀려서 불행한 2등급들에게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을 하면 완벽하게 참인 진술입니다. 워처럼 막힘없이 생각이 나서 넘어가면 그뿐입니다. 1%·1등급 학생들, 혹은 3등급 학생들은 '참'이라고 하고 쉽게 넘어가는 진술인데요. 그런데 위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똑똑하긴 한데 실전에서는 맨날 2등급 받는 학생들이 아래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명석하고 뛰어난 나의 두뇌에서 나온 그럴 듯 해 보이는 생각에 뇌파설, 스스로 자아 도취되어 자기 생각만 맞다 합리화시키고, 선택지 진술은 그냥 틀리다'는 건데요. (안 좋은 사고 습관, 비현실적-반사회적 사고 습관) 제발요. 내 생각이 맞아도, 선택지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습관을 고쳐야 비로소 1%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당신 생각에 대한민국 남녀노소 70%가 동의할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보세요.

#### + '조력자는 유모가 아니라 바람이다'설

'아니 이거~ 바람이 다 한 거 아닌가요? 독약 든 죽을 소저가 먹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유모도 처음에는 이게 독이 든 건지도 몰랐는데, 바람이 알려준 거잖아요. 바람이 조력자죠. 바람이 다 했는데, 유모는 그냥 손가락만 얹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 이거 소수론 아니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 말마따나 유모는 손가락만 얹은 걸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손가락이라도 얹었잖아요? 조금 도왔다고 해서(상대적) 안 도운 것(절대적)이 아닙니다. 조금 도왔든, 많이 도왔든 도운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왔든, 간접적으로 도왔든 도운 것입니다. 먼저 도왔든, 나중에 도왔든 도운 것입니다.

#### ++ '위기가 아니다'설 (확장판으로 이런 얘기까지...)

'독약인줄 모르고 먹으려 한 건 위기이고, 이걸 넘기게 해준 것은 바람이다. 이후에 주는 음식 안 먹는 건 위험을 알고 대처하는 유소저의 자기 선택인데 이게 왜 위기냐? 처음만 위기고 그 이후는 위기가 아니다. 독살 위험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위기가 아니다'

-> 첫 번째 독살 시도도 위기겠지만, 이후에 주는 음식을 통한 독살 시도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순간뿐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 나옵니다. 위기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한번 넘겨도 위기가 계속해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만 위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주는 밥 못 먹어서 끓어죽을 위기에서 소저를 구해주는 것은 유모가 확실합니다.

#### +++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설 (이건 좀 참신한데...? 근데 이거 칭찬 아니다)

하다하다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참신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끓어죽을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유모가 조력자든지 말든지 '벗어나도록'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 위기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비'는 '일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 또는 막다른 절정'이라고 하네요. 즉, 위기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닥쳐오는 '끓어죽을 위기'를 벗어나도록 유모가 도와줍니다.

## ※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스타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둘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첫째는, 이렇게 기고만장한 학생을 **‘찍어 눌러 주는 방식’**입니다. ‘동어반복이나 잘 하라고, 근거를 니 뇌가 아니라 지문에서 찾으라고’ ‘너 뭐 돼?, 니가 뭔데 다른 사람 생각을 그저 틀렸다고 무시해? 세상 다 너만 맞는거야? 겸손해지라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쓸데없이 과하게 생각하면서, 시간낭비나 하니까 맨날 시간 부족하다고 하고 1등급도 안 나오는 거야.’ ‘적당히 뭉개서 볼 줄 알아야 된단니까? 수능 문항은 너한테 그렇게 디테일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너 뭐 국문학과 가서 논문 쓸 거냐고.’
- 둘째는, 위 해설처럼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를 **하나씩 친절히 설명해주고 납득시켜 가면서 과한 사고를 그때그때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시겠죠. 다만 이 방식으로는 안 좋은 습관이 고쳐지는 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어떤 학생들은 끝끝내 못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좋게좋게 친절히 말해주니까, 사람 말을 듣는 척 이해한 척만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응 내가 맞아~ 수능가면 내가 맞아~’ 이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당장 안 좋은 습관을 고치고, 단기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는 첫 번째 방식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있으니, 학생분들도 달달한 당근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채찍마저도 자기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가며 공부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그 뛰어남을, 출제자나 타인의 모자람을 까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함을 적당히 억누르는 데에도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 겸손한 지혜를 갖춘 순간, 아니 **갖춰야만** 당신은 그야말로 폭풍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 #38 문법

---

### [지문]

1. 높푸르다

2. 높다랗다

3. 시퍼렇다

###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간·어미,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보는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 #38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 [정답]

1. **높-푸르다** : 비통사적 합성형용사 (연결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

- 높- : 형용사 어간

- 푸르- : 형용사 어간 / -다 : 어말어미

2. **높다랗-다** : 파생형용사

- 높- : 형용사 어간, 어근

- -다랗- : 접미사 / -다 : 어말어미

3. **시퍼렇-다** : 파생형용사

- 시- : 접두사

- 퍼렇- : 형용사 어간 / -다 : 어말어미

---

### 어근 vs 접사

- '높다, 푸르다, 퍼렇다' 등 용언의 의미가 그대로 'high, blue' 등 실질적으로 쓰인다면 어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의미가 추가된다고 하기까진 애매하고, 강조하고자하는 의도·뉘앙스 정도만 보충하는 것이라면 접사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39 문학

### [지문]

“<<서경>>의 <홍범> 편에 오행을 논하면서 ‘나무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거나 바르다’고 하였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성으로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네. 하지만 공자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니,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렇다면 사람이고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도 역시 요행이라 할 수밖에 없네.”

- 장유, [곡목설] 중

### [문제] 진위판단

1. 자연물과 인간사를 연관 지어, 인간의 천성에는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2018년 고2 3월 모의고사 42 ~ 45번 문학 지문 참조

## #39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숲과 나무, 동어반복, 포함관계

### 1. [정답] : 거짓

- '자연물과 인간사를 연관지었다'는 앞 진술은 참입니다. 자연물(선택지)인 나무(지문)와 인간사(선택지)인 사람(지문)을 연관 지어 설명 (좋은 독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애초에 지문을 읽으면서 아래와 같은 '동어반복 - 그룹짓기 -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를 해봤어야 합니다.

#### A그룹

- 나무는 그 속성으로 원래가 구부러지거나 바르다(지문)

#### B그룹

- 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지문)

#### 선택지

- 인간의 천성에는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포함된다

#### B그룹

- 인간의 천성은 '올바름뿐', 바르지 않음이 천성인데 살아남은 것은 운 좋아서다

- 선택지 표현과 지문의 B그룹과 비교해보았을 때, 다른 그룹에 속해있으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인간의 천성은 B그룹인데,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A그룹이니 다른 Group입니다.

## #40 문법

---

### [지문]

1. 애쓰다

2. 빛나다

3. 맛나다

4. 애벌레

5. 먹거리

###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40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예외 암기

### [정답]

1. 애-쓰다 : 통사적 합성동사 ( 목적어+서술어 )

- 애 : 명사 '애' / - (를) : 목적격 조사 '생략'

- 쓰다 : 동사 '쓰다'

2. 빛-나다 : 통사적 합성동사 ( 주어+서술어 )

- 빛 : 명사 어근 '빛' / - (이) : 주격 조사 생략

- 나다 : 동사 '나다'

3. 맛-나다 : 파생형용사

- 맛 : 명사

- 나다 : ★ 형용사파생접미사 '-나다 2' 그런 성질이 있음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 맛(이)나다 vs 맛나다

'맛이 나다'는 can feel its taste, 즉 맛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중립적 의미'입니다. '맛나다'는 tasteful, delicious, 즉 맛이 좋다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편견 상 '빛나다'처럼 통사적 합성동사일 것 같죠. 심지어 앞에서 '애쓰다, 빛나다'를 보았으니 더욱이나 접미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외네요. 예외는 한번 틀러보고,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한 후 결국 '암기'입니다.

4. 애-벌레 : 파생명사

- 애 : ★ 접두사 '애-'. 벌레는 벌레인데 아직 덜 컸으니까, '애기'니까, 그럼 명사 '애' 아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예외입니다. 역시 암기

- 벌레 : 명사 어근 '벌레'

+ 표준어규정 3장4절25항 : 애벌레'의 의미로 '어린벌레'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애벌레'만 표준어로 삼는다.

5. 먹-거리 : 비통사적 합성명사 (동사 어간이 관성사형이 되지 않고 명사 수식)

- 먹 : 동사 어간 '먹'

- 거리 : 의존명사 '거리'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 내용이 될 만한 '재료'를 의미.

vs 목거리(신체 부위에 나는 병) 이틀거리(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동안) 떼거리(비하) 등에서는 괄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지만, '재료'로 쓰이면 의존명사입니다. 암기!

# #41 문학

## [지문]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오 인이 앉았거늘, 흥보 들어가며,

“인사하오.”

“에 마오.”

“거기 뉘라 하오?”

“나 말씀이오? 조선 제일 가난 흥보를 모르시오.”

한 놈 나서며,

“장자(長者)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흥보 가슴이 꿈쩍하여,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촌서 사는 솔봉 애비 모르시오. 이십오 대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소.”

또 한 놈 나왔으며,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으로 사십육 대 호적 없이 남의 결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직이란 말 듣도 못하였소.”

한 놈 나왔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저분 언제 왔소?”

“나 온 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한 놈 나왔으며,

“나는 온 지가 십여 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 본 내 아들놈 없소.”

흥보 이른 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 갑세.”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 보오.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달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 없고 삼순구식(三旬九食) 먹어 본 내 아들 없소.”

한 놈 나왔으며,

“족히 먹고살 수는 있겠소. 저분 가난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 보오. 내 가난 남과 달라 이 대째 내려오는 광주산(廣州産)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팔 년이로되,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짓고, 부엌의 노랑 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툇이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드러누운 지가 석 달 되었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김딱직이 썩 나왔으며,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소. 내 가난 들어 보오. 조그마한 한 칸 초막 발 뺨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돌이 안고 누워 있으면 내 상투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 보이니,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내 궁둥이 치는 소리 사월 팔일 관등(觀燈) 다는 소리 같고,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삼 년째 되었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 갈 것이니.

- 작자 미상, [흥보전]

## [문제] 진위판단, 주관식 풀기

1. 밑줄에서는 가난 때문에 아내가 주위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정답 : ( 참 / 거짓 )

2. 지문 내 등장인물들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 및 그 효과

정답 :

## #41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진위판단, 숲과 나무

### 1. [정답] : 거짓

- 나무 : 애들이 아내 궁둥이를 치다니... 애들이 어른을 때??? 머켰네 어거...촉법소년?!?!?! (XXXXXXXXXX)
- 숲 : 상황 맥락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매를 대신 맞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누가 맞을지 경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맞고 돈 벌어 가는 걸로 하게 되니, 서로 자기가 더 가난하다며 '가난 코스프레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가난해서, 집이 너무너무너무 좁아서, 아내 엉덩이가 집 밖으로 튀어 나와서 아이들이 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는데, 실제로 괴롭힌 적도 없는데, 괴롭힌다고 하니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린 것입니다. 어거 아이들한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할 말 없는

#### + 괴롭히다 vs 치다

: 치면 다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힌다고 다 치는 것도 아니죠. 판단 기준은 의도와 행동의 결과값입니다. 치지 않았어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수영장 놀러 가자고, 수영장 앞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일부러(의도) 안 나가서 친구 하나 골탕 먹이는 것, 치지는 않았어도 괴롭히는 겁니다. 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보니 밀려서 옆 사람과 부딪힌다고 괴롭힌 게 아닙니다. 의도와 행동의 결과값을 엄밀히 구분하도록 합시다. 이 역시도 절대적(결과)인 것과 상대적(의도)인 것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LEET급의 사고였습니다만, 요새는 수능에서도 물어보는 출제요소입니다.

### 2. [정답] : 과장법을 통한 해학적 표현, 비극적인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으로 승화시켜 극복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조선에서 제일 가난한 흥보다
  - 나는 이십오 대째 가난하다
  - 나는 사십육 대째 남의 집 결방살이한다
  - 오늘 매 맞겠다고 지난 장날에 왔다
  - 오늘 매 맞겠다고 십일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도 매 못맞았다
  - 우리 집은 벼룩도 못 앉을 정도로 작다. 30일 동안 9끼 먹을 정도(삼순구식)
  - 8년 동안 집 식탁에 사발 한번 없어서 밥먹은 적이 없다
  - 집이 너무 좁아서 아내 엉덩이가 잘 때마다 집밖으로 튀어나온다. 집에 밥짓는 연기가 삼 년간 안 났다.
- > 천하제일 과장대회입니다. 과장을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 뇌절-그랜절 듣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가 되어 웃음이 나오게 만들죠. 세계관 최강자들의 자강두천 가난 싸움

## #42 문법

---

### [지문]

1. 하지만 (However)

2. 감사하지만

###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 #42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1. 하지만 : 단일어, 접속부사

-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

2. 감사-하지만 : 파생동사 or 파생형용사

- 감사 : 명사 어근

- -하- : 동사 or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

- 지만 : 어미 '-지만'이 용언 어간 '(감사)하-' 뒤에서 활용됨

## #43 문학

### [지문]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지?”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의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애기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㉞“뻥뻥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을 시작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하냐?”

병국의 언성이 높아졌다. 여윈 목에 푸른 심줄이 불거졌다. 그때 늙은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라 왔다.

“나 원, 별 말코 같은 소릴 다 듣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입자 있나? 형,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였어, 어쨌어?”

하고는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에 밀어 놓았다. 그리고 그 잔에다 술을 부었다.

“자, 우선 한잔 꺾지. 형제의 우정을 위해서.”

“누가 네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을 대.”

병국이 술이 찬 잔을 한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출렁거린 술이 반쯤 식탁 위에 쏟아졌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순 없어.”

㉟“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쳐. 내가 알기로 이 지구상에는 삼십억이 넘는 새들이 살고 있어. 그 중 내가 오십 마리를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담 숫제 참새구이도 없애 버리지 뭘,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구.”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중

### [문제] 진위판단

1. ㉞에서 병국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병식을 비웃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2. ㉟에서 병식은 병국의 이론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답 : ( 참 / 거짓 )

※ 2009년 고1 9월 모의고사 29~32번 문학 지문 참조

# #43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절대적vs상대적

### 1. [정답] : 거짓

- '쓸데없는 짓...? 비웃는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라는 **찝찝함**이 드셔야 합니다. 이 **'찝찝함'**이라는 느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느낌'**의 근거를 생각해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바로 뒤의 상황(숲)을 보면, 병국이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목에 핏대까지 새우고, 술도 얹어 버리잖아요. 비웃는 정도를 넘어서서 화내고 비난하고 있죠. 또 '새 독살'을 단순히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기는 걸 넘어, 해선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죠. 거짓 (다수론)

- 아래 표와 함께 5개 진술들을 비교해봅시다.

ㄱ	ㄴ	ㄷ	ㄹ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
거짓	거짓	참	참

- 병국은 자기 몰래 '착한 일'을 하는 병식을 '부러워하고' 있다 : ㄱ,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 거짓

- 병국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병식을 '비웃고' 있다 : ㄴ,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찝찝), 거짓  
 + 쓸데없는 짓(새 독살?), 비웃고(뻘뻘스런 자식이라는데? + 언성이 높아지고 뒤에 핏줄까지 세우는데?)

- 병국은 '나쁜 짓'을 하는 병식을 '비웃고' 있다 : ㄴ,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찝찝), 거짓  
 + 나쁜 짓(새 독살), 비웃고(뻘뻘스런 자식이라는데? + 언성이 높아지고 뒤에 핏줄까지 세우는데?)

- 병국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병식을 '비난하고' 있다 : ㄷ, 정답의 확신성이 낮게(찝찝), 참  
 + 쓸데없는 짓(새 독살?), 비난(뻘뻘스런 자식)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언성, 목 핏줄(상황 맥락)

- 병국은 '나쁜 짓'을 하는 병식을 '비난하고' 있다 : ㄹ,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편안~), 참  
 + 나쁜 짓(새 독살), 비난(뻘뻘스런 자식, 언성, 목 핏줄)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숲과 나무

+ 첫 번째 진술은 아예 반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 거짓입니다. 다만, 그 아래 4개 진술들은 모두 '부정적 행동을 하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다만, 이렇게 절대적으로는 같은 진술일지라도, **상대적으로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특히, **'애매한 표현이 2개나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정답의 확신성은 낮더라도 거짓으로 생각해달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 2. [정답] : 거짓

- 우선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가식적인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면 틀려야죠. **가식적假飾的**이란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 분명, 병식은 병국의 이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절대적) 그러나 그것을 '가식적'이라고 보는지, '쓸데없다'고 보는지, '의미가 미미하다'고 보느지는 다른 문제(상대적)입니다. **부정적으로는 보지만, 가식적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거짓**입니다.

+ 병식의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체 30억 마리 새 중 50마리는 매우 적은 수다. 병국에겐 안타까운 일일지 몰라도, 세상에는 그리고 내게는 별 의미 없다. 의미가 크지 않다.

두 번째, 참새구이는 새 죽여서 먹는 건데 이걸 왜 비난 안하냐? 닭은 새 아니냐?'입니다.

관련해서 아래 영상도 참조해보시죠.

[응답하라 1994, 계란찜 안먹어?] <https://www.youtube.com/shorts/S809xEC1wSQ>

칠봉이(친구) : "나정이 넌 계란찜 안 먹어?"

성나정(딸) : "난 유정란 싫다. 대가리 먹는 거 같아서."

성동일(아빠) : "푸흐흐흐흡. 염병하네~ 가시내~~~ 통닭은 두 마리씩 처먹은 년이~"

- ++ 지문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 병국이랑 병식이 지금 먹고 있는 술안주가 치킨이었다면? 새를 보호하자는 병국의 이론이 가식적이었겠죠. 말로는 새 보호하자면서, 치킨을 두 마리씩 처먹은 것은 충분히 가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병국이 뭘 먹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국이 참새구이가 문제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애써 모른 체 했고 심지어 먹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나온다면, '가식적' '모순적'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병국은 아마 '참새구이'가 문제라고 이전까지는 인식조차 못했을 것이고, 병식에게 이런 비판을 들은 순간부터는 참새구이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좋은 사고 습관 : 인물의 성격 및 상황에 따른 인물의 행동 추론**)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 #44 문법

---

### [지문]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기획에 걸맞는 기사를 써 보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할 때, 동아리 선배는 SNS 로 설문 조사를 할 때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 [문제] 진위판단

1. 밑줄은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걸맞은’으로 고쳐야한다.

- 정답 : ( 참 / 거짓 )

---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44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고쳐쓰기

[정답] : 참

- 평소에 발음할 때 [결마즌]보다는 [결만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구요. 발음의 편의성 및 익숙함으로 인해, 맞는 표기를 어색하게 느끼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틀렸을 때 제대로 공부해두어 다시는 안 틀리는, 그래서 수능 날만큼은 발목 안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사는 '진행'의 의미인 '-는'이 결합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진행'의 의미는 '-는'이 결합될 수 없고, '현재 상태' 혹은 '완료'의 의미인 '-(으)ㄴ'과만 결합 가능합니다.

★ 사전에서 찾아보면,

-ㄴ

: 다음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예) 빠른 기차, 긴 여정
- '이다'의 어간. 예) 군인인 아버지
- 선어말 어미 '-으시-'. 예) 좋으신 분

-은

: 다음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ㄹ'을 제외한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예) 많은, 깊은, 좋은, 맑은

# #45 문학

## [지문]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문턱에 귀대로 엮들을 땀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배게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아아, 네가 왔구나.  
 산 넘고 물 건너  
 누런 해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오냐,  
 안쓰런 마음은 만리 길인데  
 황망히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후두둑,  
 덧잎 끝에 방울지는  
 봄비 소리.

- 오세영, [너의 목소리] -

창밖에 워석버석 임이신가 일어 보니  
 헤란 혜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고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곳을까 하노라

- 신희, [방옹시여] 2수 -

\*헤란 혜경 :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일어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 [방송시여] 3수 -

## [문제] 주관식 풀이, 진위판단

1. 지문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모두 밑줄쳐보세요

정답 :

2. '너의 목소리'는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와 화자에게 반가움과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 16~20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45 정답 및 해설

## 1. [정답]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문턱에 귀대로 엮들을 땀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배게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아아**, 네가 **왔구나**.

산 넘고 물 건너  
 누런 해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오냐**,

안쓰런 마음은 만리 길인데  
 황망히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후두둑,  
 땃잎 끝에 방울지는  
 봄비 소리.

- 오세영, [너의 목소리] -

창밖에 워석버석 임이신가 일어 보니  
 헤란 혜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고**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곱을까 **하노라**

- 신희, [방옹시여] 2수 -

\*헤란 혜경 :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일어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 [방송시여] 3수 -

## ★ 영탄적 표현 ★

- 길게 숨을 내쉬며 **한탄**
- 감탄사 등을 이용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영탄적 표현

- 문장부호 : ! 느낌표
- 감탄사 : 아, 아아, 오, 오오, **오냐**, **어즈버**(감탄사 '아'의 옛말)
- 감탄형 종결어미 : ~구나, ~어라, ~아라, ~리라, ~네, ~지어이

### 정답의 확신성이 낮지만 그래도 영탄적 표현

- 호격조사 : ~아, ~야, ~이여, ~이시여
- 의문형 종결어미 : ~하는가, ~냐, ~랴, ~르까 등 ★**설의법**★

## 2. [정답] 거짓?

- '반가움 환기'는 참입니다. 반가움(선택지) = 아아, 네가 왔구나(지문).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거짓

- 이 시에서 너의 목소리는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시적 화자에게 '현재 들리는 환청'이다. 현재 들리는 환청이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지문에 '추억'으로 불만한 표현이 없으므로,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거짓이다. (다수론)
- + '추억'이란 그 과거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어불각-흑역사) 간에 현재의 화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과거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라면 '추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적화자와 시적대상 간에 행복하고 좋았던 과거, 즉 추억이 나타나있지 않다. 즉,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선택지-지문 동어반복이 안 되므로 거짓이다 (소수론)
- + 환청이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올 수가 없다. 화자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도 그건 화자의 착각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거짓이다. (소수론)

### 참

- 다수론 다 알겠는데요. 환청인 것도 인정하겠는데요. 지문에 추억이라고 불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그건 해설을 읽으니깐 알게 된 거구요. 지문 읽을 때 위 해설이 막힘없이 떠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청이든 뭐든, 그리워하는 대상의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그 대상과의 추억이 안 떠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고 주제의식(산)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인데 어떻게 이 선지를 무조건 틀리다고 합니까?(나무(표현) vs 숲(상황) vs 산(주제의식)) (소수론)

### ★ 애매한 것은 세모치고 넘어가기 + 나머지 4개가 오답이므로 남은 것이 정답 ★

- 해당 문제의 원본을 찾아보면요. 틀린 진술을 고르는 문제에서 위 진술이 틀린 진술로 정답이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선택지 진술은 참이었죠. 2번 진술이 거짓이므로 정답이라고 하기 애매한 부분(소수론)이 있었기에, 학생들이 정답의 확실성이 높게 위 진술은 무조건 정답이라고 짚고 넘어가기(이상적 풀이)가 힘들었습니다. 정답이었던 선지는 비록 정답의 확실성이 낮은 애매한 진술이지만, 나머지 4개 진술이 너무나도 참이라서 짹짹하지만 위 진술을 정답이라고 짚고 넘어가서 맞춘 학생들이 많습니다. (현실적 풀이)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정답을 맞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정답은 맞혀놓고 따지세요. 애매한 진술에는 성급하게 OX 치지 마시고 △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제 3의길, 삼길)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를 잘 판단하다보면 일단 정답은 맞혀서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르든 애매하든 일단 어떻게든 정답은 맞히고, 선생님께 애매했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것. 이게 1%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 + 선택지가 죄다 애매해서 다 △면 어떻게 하나구요? △를 1개 이내로 만드는 실력까지는 갖추셔야 합니다. 수학도 모르겠는 문제는 넘어가서 시간관리·멘탈관리 하라고 하지만, 몰라서 넘기는 문제가 5개가 넘어가면 그 시험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실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 #46 멘토링

공부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부를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 [디테일]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누가 봐도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이런 것까지도 공부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디테일을 스스로 찾아내어 굳이 공부해둡니다. 그래서 남들 다 틀리는 문제도 혼자서 맞혀 좋은 성적을 받죠.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릴텐데?' 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마저도, '에이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라며 대충 넘겨버립니다. 그래놓고 틀리면 '출제자가 악마네, 쓰레기 시험이네' 남탓이나 합니다.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난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필기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수업 내용도 본인 기준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적어둡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건 좀 필기해둬서 복습할 때 다시 봐야할 것 같은데?' 할 만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제가 두세 번 반복해서 얘기해주는 것들조차도 필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두면 다 기억할거라고 자만하며 제가 적으라고 말하기 전까진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 [문제를 대하는 자세]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몇 백, 몇 천 문제나 풀어봤으니 이제 그만 풀어도 될 텐데?'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풀고도 더 풀 건 없는지 교재를 추천해달라고 하고, 문제를 좀 더 풀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틀린 문제를 오답하고 복습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맞힌 문제조차도 자신이 잘 모르는데 우연히 맞은 건 아닌지 점검합니다. 틀린 진술 1개가 정답이라면, 나머지 4개의 맞는 진술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며 공부해두고자 합니다.
-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은, 자습서, 평가문제집의 그 몇 십 문제조차도 다 못 풀어서 허덕입니다.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도, 내준 숙제조차 다 못 해 와서 아까운 수업 시간에 숙제를 하게 됩니다.

### [평소에 공부할 때]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일상 공부임에도 마치 시험처럼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그게 무엇이든 어떻게든 반드시 맞히려고 오만가지 노력을 쏟습니다. 한번 앉으면 최소한 2시간은 목이 말라도 참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꼭 참아가며 앉아서 공부합니다. 공부가 안될 때에도 5분만 더 해보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공부할 때 시험과 최대한 유사하게 공부를 하니, 시험 때 덜 긴장하고 평소처럼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겠죠.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할 때 '에이 시험 아니니까 괜찮아~'하면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문제를 푸니 꼭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실수해서 쉬운 문제를 틀려놓고도 '에이 시험 때는 제대로 집중하니까 이런 거 안 틀려~'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마음 편한 일상 공부에서 완벽하게 다 맞히더라도, 긴장되는 실전 시험에서는 실수를 안하기가 어렵다는 걸 끝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평소에 대충 공부해서 실수를 밥먹듯이 하는게 습관화 되어 있으니, 더 떨어지는 시험에서는 평소보다도 많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 [예습 복습]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차피 나중에 알려줄 텐데 이렇게 까지 미리 다 공부해서 질문하나?' 싶을 정도로 예습을 해두고 제가 잘 가르치는지를 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생의 존재감이 선생님에게도 좋은 자극을 주고, 수업 준비를 더 하게 만들어, 수업의 질을 높여 결국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합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미리 좀 공부해두고 가야 겨우 수업을 따라갈 텐데?' 싶은 것들마저도 수업 때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며 예습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복습을 충분히 많이 해서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 범위 본문 분석을 보고 또 보고 지겹도록 계속 봅니다. '이제 이 공부는 그만하고 딴 과목 공부에 신경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우 저렇게 반복하고 복습하면 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도, 이미 다 외웠는데도 막힘없이 정확하게 기억해내겠다며 더 공부하겠습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아직 한참 부족한 거 같은데도 이제 다 안다며 끝났다며 복습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시험 때 '아~ 이거 전에 봤던 건데 내용은 기억이 안나네~'하면서 문제를 틀리곤 하죠. 한번 본 걸 싹 다 기억해내는 사람은 70억 인구 중 고작 몇 백 명뿐이고, 분명한 사실은, 저조차도 그리고 학생 본인조차도 그런 류의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 하는 건 똑똑하게 외우고 부지런히 반복해서일 뿐이고,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암기를 귀찮아하고 반복을 안해서입니다.

## [시험 순간에]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는 1초 전까지도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혀보겠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합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더 해봐야 의미 없다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여 지레 먼저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놓고선 '깜빡 졸았다, 전날 잠을 못자서 피곤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누가 옆에서 다리를 떨었고, 시험 날 아침에 아빠가 이상한 소리해서 기분을 잡쳤고, 감독관 표정이 무서웠고' 등 정말 별 듣도 보도 못한 참신한 이유까지 들먹이곤 합니다. 시험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포장하기에만 바쁘죠. 최악의 불운 속에서도 해야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임을 끝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변명만 늘어놓는 자신의 모습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하게 보이는지 알지 못하죠.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바쁘는데, 시험을 못 본 이유나 만들어내고 있으니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준비, 내 주변을 나의 것으로 지배할 수 있는 능력]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필기구·교재·숙제·일정 등 혹여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없는지 몇 번이고 점검하여 아무 것도 빼먹지 않으려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 또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착실히 공부를 해나갑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뭐 다 했겠지, 다 챙겼겠지, 부모님이 해다 줬겠지'하면서 덜렁대다가 중요한 순간에 뭘 빼먹어 그날 하루 공부를 망칩니다. 그래놓고서는 '엄마가 안챙겨줬네, 친구가 안돌려줬네, 문방구가 달았네~' 하면서 남탓이나 하고 있습니다.

-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숙제도 준비물이든 시험공부든 예습이든 복습이든 수강신청이든 미리미리 다 해두어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오로지 해야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정리해둡니다.

-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은, 숙제도 수업 직전에, 준비물도 수업 닳쳐서, 시험공부도 전날에 벼락치기로, 복습도 할까 말까하인데 예습은 무슨, 신청도 마감 닳쳐서 허둥지둥하다 시간을 넘겨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매번 미리 좀 해둘걸 하고 후회하면서도 결코 미리 해두는 법은 없습니다.

## [자기 관리]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친을 사귀든, 음악을 하고 듣는 게 취미든, 영화·드라마·유튜브 보는 게 취미든, SNS·커뮤니티를 하든, 아이돌·애니메이션 덕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공부를 잘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남들처럼 하긴 하되,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적당히,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취미를 즐길 시간에는 취미에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는 노느라 못한 만큼 더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합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들 또한 자신들만의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반나절씩도 하고, 그러느라 늦게 자고, 그러면서도 공부할 때는 또 멍 때리며 집중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루 공부시간을 따져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비해 반에 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시간은 목숨 걸고 지켜서 알뜰하게 놀면서, 공부 시간은 대충대충 어영부영 보내고 앉아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스트레스 해소 시간입니다. 근데 공부도 안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니 이게 주객전도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놀아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할 때도 노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도 노니 공부를 못하는 거라구요. 놀지 않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법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 [자기 객관화]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본인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져도 될 텐데,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겸손하게, 본인을 늘 과소평가해가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겸손하게 더 공부합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저렇게 살면 부모님·선생님 등 주변에, 그리고 자기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태하게 살면서도 이 정도면 됐다고 자만하고 대충 공부합니다.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화를 삭히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가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어야 잘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는 모질이가 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와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발전하려고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그 순간만 좀 힘든 척하고 결국 이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 [실천]

-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꼼꼼하게 계획을 짜면서도 너무 계획만 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계획한 것을 그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계획조차도 안하기 일쑤고, 계획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저 계획만 세워놓고, 하겠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서는 결국에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의미가 없고, 그럼 그걸 계획했던 시간도 무의미해지고 다 낭비일 뿐 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계획과 다짐은 집어치우고 책을 펼쳐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실천하다 잘 안되면 계획을 다시 짜보면 됩니다.

지난 9년 간,  
7등급부터 전국권 등수의 초중고 수험생들 수백 명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점은,  
공부를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데에는 역시 다 그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모습들 중 본인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한 행동들이, 지금 이 순간의 본인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의 내 행동을 바꿔, 내일은 좀 더 나아진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파이팅



# #47 문학

## [지문]

A	B
<p>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학단풍 늦었으니  상사일념 무한사는 저도 나를 그리려니  굳은 언약 깊은 정을 낸들 어이 잊었을까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이 시기런지  삼하삼추 지나가고 낙목한천 또 되었네  운산이 멀었으니 소식인들 쉬울손가  대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 때런고  홍중*의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 타 간다  인간의 물로 못 끄는 불이라 없건마는  내 가슴 태우는 불은 물로도 어이 못 끄는고</p>	<p>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u>세우사창 저문 날과 소소상풍 송안성*</u>의  상사몽 놀라 깨여 맥맥히 생각하니  방춘화류 좋은 시절 강루사찰 경개* 좇아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 험흙*할 제  청산녹수 증인 두고 차생백년 서로 맹세  못 보아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오는 글발 가는 사연 자자획획 다정터니  엇지타 한 별리가 역여조기* 어려워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세보, [상사별곡]</p>

- \* 대인난 :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괴로움
- \* 홍중 : 마음속
- \* 송안성 : 기러기 울음소리

- \* 경개 : 경치
- \* 일부일 월부월 : 날마다 달마다
- \* 험흙 : 화목하게 사귀
- \* 역여조기 : 그리는 정이 간절함

## [문제] 진위판단

1. 시의 내용 전개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이 포착된다.

정답 : ( 참 / 거짓 )

2. 밑줄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3. 이 시가 A, B 두 화자가 각자 자신의 사연을 차례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A '저도 나를 그리려니'와 B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를 통해 두 화자가 서로를 그리워함을 알 수 있다.

정답 : ( 참 / 거짓 )

※ 2019년 고2 3월 모의고사 42~45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 #47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기초한자, 사자성어, \*표시

### ★ 사자성어 및 기초한자 공부의 중요성

고3 수능 가면 사자성어 문제 더는 안 나오니까 고2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소리 믿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문법'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주어-동사 수일치, 능·수동태, 관계사, 병렬구문, 가정법 정도만 공부해도 된다는 캐소리 믿지 마세요. 출제자분들 그렇게 만만한 분들 아닙니다. 사자성어, 영문법을 문제 자체로 내지 않는 만큼, '지문 속에 사자성어와 문법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아래 사자성어들은 출제자가 \*표시로 추가설명해주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거라 가정한 단어들입니다. 원문에서는 앞 지문처럼 한자조차 주지 않았습시다. '역여조기' 정도는 돼야 출제자가 \*표시로 설명해줄 만큼 어려웠던 것이고, 그 외에는 알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은 완벽하게 다 알기는 어려웠을지라도, 아래처럼 기준에 알고 있는 기초한자어(나무)를 통해서, 앞 뒤 맥락(숲)을 통해서라도 그 의미를 파악했는지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만학단풍 : '단풍'이면 가을이겠네.

상사일념 : '상사병'인가보다.

삼하삼추 : 세 번의 여름(하), 세 번의 가을(추)이면 3년이 지났다는 것이겠지

낙목한천 : 떨어진(낙) 나무(목) 찬(한) 하늘(천)이면 늦가을 혹은 초겨울인가보다. 가을 지났다니까 초겨울쯤?

구회간장 : 간장이 다 타 간다고 하니 애간장(간장)이 탄다는 뜻인가보다

세우사창 : 가느다란(세) 비(우), '사창'은 여인이 머무는 방의 창가로 자주 보지 않았나?

소소상풍 : 뭔지는 몰라도 바람(풍)

방춘화류 : 봄(춘), 꽃(화)이려나

강루사찰 : 뭔지는 몰라도 좋은 시절에 경치를 좋는다고 하니 장소겠지. 아 설마 절(사찰)이려나?

운우지락 : 구름(운), 비(우)가 즐겁다(락)? 여튼 뒤에 화목하게 사귀다고 하네(협협)

청산녹수 : 푸른 산 푸른 물. 이걸 알지

차생백년 : 뭔지는 몰라도 100년이라잖아. 다음 생애?

자자획획 : 자획? 글자? 앞에 '오는 글발 가는 사연'이라고 했으니 글쓰는 건가. 글자마다 다정하다는건가.

### 1. [정답] : 참

- 시간의 흐름(선택지) = 삼하삼추 지나가고 낙목한천 또 되었네(지문)

### 2. [정답] : 참

- \*표시 정말 중요합니다. \*표시는 혹시 내가 아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 단어의 설명에 출제자는 출제요소 및 출제의도를 담기 때문입니다. '기러기'면 자연물빠박이죠. '울음소리'인데다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애상적(임과 못 만나서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여 슬픔)이구요.

### 3. [정답] : 거짓

- '서로' 하나 때문에 틀린 진술입니다. 이 두 화자가 '서로'를 그리워하지는 않죠. 각자 그리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로 인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맞는 진술 사이에 씩 틀린 진술 하나를 집어넣는 출제자의 출제요소에 낚이지 않기 위해 선택지를 볼 때 좀 더 긴장하며 선택지를 더 쪼개서 봅시다 (좋은 문제 풀이 습관 : 더 긴장하며 더 꼼꼼하게 선택지를 쪼개기)

## #48 문법

---

### [지문]

1. 내리치다

2. 떠넘기다

3. 붙잡히다

###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 #48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 [정답]

1. 내리-치다 : 비통사적 합성동사 (연결어미 없이 어간 + 어간)

- 내리 : 동사 '내리다'의 어간

- 치 : 동사 '치다'의 어간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2. 떠-넘기다 : 통사적 합성동사 { 어근 + 연결어미 + 어근(파생어) }

- 뜨 : 동사 어간

- 어 : 연결어미 (+ 탈락)

- 넘 : 동사 어간

- 기 : 사동 접미사 -기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3. 붙잡-히다 : 파생동사(동사의 피동형)

- 붙 : 동사 어간 + -잡 : 동사 어간 : 비통사적 합성동사 (용언과 용언이 연결어미 없이 직접 결합)

- -히 : 피동접미사

- -다 : 어말어미 종결어미

## #49 비문학

---

### [지문]

생물 개체의 적응은 자연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중요하며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선택은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진화의 큰 틀에서는 급속한 종 분화, 종의 안정성, 멸종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연선택이 개별 유전자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가 아니라 개체이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선택이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기도 한다. 여러 종들로 구성된 한 계통에서 어떤 종은 멸종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종 분화를 더 쉽게 만드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체 수준이 아닌 종 수준에서 나타나며 종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 [문제] 진위판단

1. 지질학적 격변과 같이 급격한 생태 조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개체군은 그렇지 못한 개체군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다

- 정답 : (참 / 거짓)

---

※ 2007년 MDEET 비문학 19 ~ 21번 참조

# #49 정답 및 해설

## [지문]

생물 개체의 적응은 자연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중요하며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선택은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진화의 큰 틀에서는 급속한 종 분화, 종의 안정성, 멸종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연선택이 개별 유전자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가 아니라 개체이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선택이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기도 한다. 여러 종들로 구성된 한 계통에서 어떤 종은 멸종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종 분화를 더 쉽게 만드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체 수준이 아닌 종 수준에서 나타나며 종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 [현장독해]

-> 생물 개체의 적응, 자연선택, 진화  
: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면 틀리는 지문입니다.

[국어 기초 : 배경지식, 상식]

-> 개별 유전자 vs 개체  
: A그룹 B그룹 대조되는 그룹이 있네요.

[좋은 독해습관 : 그룹 짓기]

-> 상황마다 선택이 다르다네요. 상황 중요!

-> 개체 vs 종 : A그룹 B그룹 대조되는 그룹이 있네요. (좋은 독해습관 : 그룹 짓기)

## 출제요소 : 결과 속

### 1. [정답] : 참

★ 좋은 문제 풀이 습관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선택지 표현을 보며 유사한 의미의 지문 표현 떠올려보기)

- 지질학적 격변(선택지) = 상황(지문)
-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개체군 = 특성(지문)
- 개체군(선택지) = 종(지문) ★★★★★
- 생존에 유리하다(선택지) = 멸종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지문)

### ★ 결과 속이 다름에 늘 주의하자 ★

출제자는 선택지에서 '종'이라는 표현 대신 '개체'군이라는 걸표현을 써서, 개체군을 '개체'쪽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개체군 대신에 '종'이라고 줬다면 정답률이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지의 표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걸표현의 속의 미가 무엇인지를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좋은 문제 풀이 습관 : 한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멈춰서 그 의미를 떠올려본다. 좀 해보다 안 되면 넘어가고)

## #50 문학

---

### [지문]

어이 못 오던다 므슴 일노 못오던다

너 어는 길우희 무쇠로 성(城)을 싣고 성(城)안해 담 싣고 담안  
헤란 집을 짓고 집안헤란 두지 노코 두지안헤 귀(櫃)를 노코 귀  
(櫃)안헤 너를 결박(結縛)하여 노코 쌍배목(雙排目) 걸쇠에 금(金)  
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갓더냐. 네 어이 그리 못 오던다.

흔 흐도 열두 드이오 흔 둘이 설흔 놀의 날 보라 올 흘리 업스  
랴.

- 작자미상, [청구영언]

### [문제] 진위판단

1. 시조의 증장에 열거법을 사용하여, 임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장  
애물들을 환기한다.

정답 : ( 참 / 거짓 )

## #50 정답 및 해설

출제요소 : 진위판단, 이론과 실제

### 1. [정답] : 거짓

- 열거법이 아니라 '연쇄법'이라서 거짓입니다.
- 반복, 열거, 연쇄 3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 상의 개념부터 읽어보시죠.

#### ※ 반복 VS 열거 VS 연쇄

**반복법** : 한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동어(同語) 반복,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유어(類語) 반복, 연속되는 문장의 결구(結句)에 동어·유어를 반복해서 쓰는 결구 반복 등이 있다.

예시)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열거법** :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사법.

예시) '꽃밭에는 장미, 백합, 튤립, 칸나가 활짝 피어 있다.'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연쇄법은 흥미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산문을 쓸 때 앞 절의 끝에 한 말의 일부분을 고쳐 다음 절에 되풀이 하는 것을 통해 점층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예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 ★ 이론 VS 실전 ★

- 위 글을 읽으며 이론적인 개념이 잡혔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반복법'은 '절대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것이 2번 이상 나와야 합니다. 위의 '살어리'같이요. 앞뒤 조사, 어미 등은 변형될 수 있어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야 내용상 반복입니다. 형식상 반복은 조사, 어미에서 비슷한 형식이 반드시 나와야 반복입니다. '열거법'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소재로 여러 번 표현하는 겁니다. 꽃은 꽃인데 여러 종류가 나오면 열거입니다. '연쇄법'은 앞뒤에 비슷한 표현이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동일표현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표현이 이어져야 합니다.

### 2인칭 의문형 종결어미 (너는) ~ㄴ다 : 중세 국어 문법

- 위 사설시조의 '못 오던다'는 의문형 '못 오는가'입니다. 의문형으로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의문문의 주어가 2인칭 '너'라면 의문형 종결어미는 'ㄴ다'로 표현합니다. '중세 문법을 알아야 고전시가 해석도 잘한다.'

## #51 문법

---

### [지문]

1. (간절한) 바람

2. (간절하게) 기다림

###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단어들을 품사·형태소 단위, 어근·접사 등 본인의 모든 문법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쪼개서 원형파악해보시고,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보는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와 관련된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추어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 #51 정답 및 해설

---

출제요소 : 쪼개서 원형파악

1. (간절한) 바람 : 파생명사

\* 앞에 '간절한'으로 보건데 wind라기보다는 hope로 보는 게 좀 더 나아보입니다.

- 바라- : 동사 '바라다'의 어간

- -ㅁ : 명사 파생 접미사. 앞에 관형어(간절한)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바람이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음

2. (간절하게) 기다림 : 단일어

- 기다리- : 동사 '기다리다'의 어간

- -ㅁ : 명사형 전성어미. 여기서 -ㅁ은 명사 파생 접미사 아닙니다.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않으며,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죠. 기다림이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52 문학

### [보기]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티타임을 위하여]의 ‘아내’ 역시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을 지닌다.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닮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임이 밝혀진다.

### [지문]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것 자몽 아냐?”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구요.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구요.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가지더라구요. 바나나는 날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 이선, [티타임을 위하여]

### [문제] 진위판단

1.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매개자의 삶에 대한 모방 심리를 자각하게 하여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소재이겠군.

정답 : ( 참 / 거짓 )

※ 2021년 고2 3월 모의고사 43~45번 문학 지문 참조

# #52 정답 및 해설

## [보기]

르네 지라르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간접화된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티타임을 위하여]의 '아내' 역시 아파트 주민들을 매개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을 지닌다.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닮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이 허상이 밝혀진다.

## [지문]

“아파트에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것 자몽 아냐?”

“글쎄, 오늘 은행에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구요.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구요.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가지더라구요. 바나나는 날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이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 이선, [티타임을 위하여]

## [보기] 현장독해

- 주체, 매개자, 모방, 간접화된 욕망. 확인.
- '아내' = 주체
- '아파트 주민들' = 매개자
- '닮고' = 모방
-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 = 간접화된 욕망 / + 경쟁심리
-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 = 중산층의 삶 = '허상'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지문] 현장독해

- 아파트 이사 = [보기] 매개자 + '자몽'이 키워드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 - 지문 동어반복]

- 간식 = 자몽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티타임이면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다

[좋은 독해 습관 : 한정표현 '~만' 나오면 주의]

- 만만한 게 자몽이라 샀다.

## 출제요소 : 공통점vs차이점, 절대적vs상대적

### 1. [정답] : 거짓

- 나머지 부분은 다 맞는데요.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공통점, 절대적, 이미 하기로 한 것) 이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티타임이 차 마시는 줄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죠. 티타임을 안 하다가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타임은 이미 하는데, 차에다 간식까지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 티타임에 차'만' 넣지 않고 간식도 넣겠다고 결심하게(차이점, 상대적, 잡지를 통해 알게 되어 모방하기로 결심한 것)가 맞는 표현입니다. (좋은 풀이 습관 :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밀히 구분하기)

★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 답 알고 있고 해설 보고 나서, 사후적으로 멋들어지게 풀이한 것 아니냐?

- 지문-지문 동어반복, 보기-지문 동어반복, 한정표현 주의 등과 같은 '좋은 독해 습관'들이 쌓여서, 위와 같은 생각을 실전에서 문제풀이 할 때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독해 습관에 좋은 문제 풀이 습관, 좋은 사고 습관이 더해져야만, 전체 오답률 80% 문제를 막힘없이 맞힐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습관이 되도록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53 비문학

### [지문]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반의어라고 한다. 이 중 '넓다/좁다'처럼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을 등급 반의어라고 한다. ㉠등급반의어의 대립 쌍 중 일부는 두 단어 중 하나가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마당의 면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당의 '넓거나 좁은 정도'를 물을 때, "마당이 얼마나 넓니?"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당이 좁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마당이 얼마나 좁니?"라고 묻는 것은 어색하다. 또한 넓은 정도를 나타내는 파생 명사로 '좁이'가 아니라 '넓이'가 사용된다. 이는 '넓다'가 '좁다'에 비해 어떠한 전제나 가정이 없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등급반의 관계에 있는 '넓다/좁다'에서 '넓다'가 더 활발하게 쓰여 사용상의 비대칭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문제] 아래 담화 상황의 밑줄들 중, 밑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진주 : 여행 잘 갔다가 왔어? 기억에 남는 곳은 있니?  
승민 : 이육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육사 문학관에 갔어. 볼 것도 많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  
진주 : 나도 가 보고 싶다. 문학관이 커?  
승민 : 우리가 같이 갔던 황순원 문학관보다 작아. 입장할 때 줄도 섰어  
진주 : 그랬구나. 줄이 길었어?  
승민 : 내 앞에 다섯 명 정도 있었어. 줄은 짧았는데 줄어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사람들이 천천히 관람하느라 그런 것 같아.

[정답] :

※ 2020년 고2 9월 모의고사 11 ~ 12번 문법 지문 참조

## #53 정답 및 해설

### [정답] 커?, 길었어?

#### 출제요소 : 응용력, 동어반복, 반대적 사고, 전제파악

- 문법 문제였지만 비문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등급반의어에 대한 생소한 정보와 예시를 읽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는 '응용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문 사례인 '넓다' '넓이'와 비슷한 표현을 문제의 담화 상황에서 찾아 연결짓는 '동어반복'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의어'를 떠올려보는 '반대적 사고'를 발휘하여 푸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등급반의어 자체가 아니라면 틀리게 하는 전제 파악 능력. 등급반의관계의 두 단어 중에서도 '더 일반적인' 단어를 정답으로 찍는 꼼꼼함. 겉으로는 문법 문제의 탈을 썼지만, 비문학에서 쓰는 좋은 독해 습관 및 좋은 문제 풀이 습관을 발휘해야하는 사실상 비문학 문제였습니다.
- '왔어?'를 보면서 '갔어?'를 떠올려 보는 반대적 사고를 해보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 잘 갔어?'보다는 '여행 잘 갔다 왔어?'가 더 자주 쓰이므로 맞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왔다와 갔다 사이에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즉 등급반의어 자체가 아니라서, 전제 자체가 틀리다고 하셨어야 합니다. 참고로 '가다, 오다'는 방향반의어죠.
- "있니?"를 보면서 "없니?"를 떠올리는 반대적 사고. 기억에 남는 곳은 있니? 기억에 남는 곳은 없니? 둘 다 쓰이므로 밑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있니?'가 '없니?' 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애매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다-없다' 역시 정도가 있지 않으므로 등급 반의어가 아니고, 상보 반의어입니다. (좋은 문제 풀이 습관 : 전제 놓치지 말기!)
- '나도 가 보고 싶다'를 보면서 '나도 와 보고 싶다'를 떠올리는 반대적 사고. 물론 '나도 와 보고 싶다'가 어색합니다만, 여기서라도 '오다-가다'는 등급 반의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채셨어야 합니다. '왔어?'를 풀 때 밑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처음에 저질렀더라도, '가'를 보면서라도 실수를 고쳤어야 합니다. (좋은 문제 풀이 습관 : 실수를 돌이키는 매커니즘)
- '문학관이 커?'를 보면서 '문학관이 작아?'를 떠올리는 반대적 사고. '문학관이 넓어?'라고 물어보지, '문학관이 좁아?'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작아?'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는 연결적 사고(좋은 문제 풀이 습관 : 지문-문제 동어반복). 지문 '넓이' '좁이'를 떠올리며, 큰 정도를 나타낼 때 '크기'를 쓰지 '작기'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는 응용력.
- '작아-커'는 등급반의어죠. 그러나 '작아'가 더 일반적인 경향으로 쓰인 게 아니라, '커'가 더 일반적인 경향으로 쓰이죠. 밑줄 조건 '등급 반의어', '둘 중 더 일반적인' 2가지 조건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밑줄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겁니다. '커?'가 맞으니까 '작아'도 맞겠거니 하고 실수하면 틀리는 겁니다.
- '줄이 길었어?'를 보면서 '문학관이 작아?'를 떠올리는 반대적 사고. '줄이 길어?'라고 물어보지, '줄이 짧아?'라고 물어보지 않고, 긴 정도를 나타낼 때 '길이'를 쓰지 '짧기'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는 응용력.
- '짧았는데-길었는데'는 등급반의어죠. 그러나 '짧다'가 더 일반적인 경향으로 쓰인 게 아니라, '길다'가 더 일반적인 경향으로 쓰이죠. 밑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겁니다. '길었어?'가 맞으니까 '짧았는데'도 맞다고 실수하면 틀리는 겁니다. 밑줄 조건 '등급 반의어', '둘 중 더 일반적인' 2가지 조건을 놓치지 않는 꼼꼼함.

## #54 상식

### [지문] '모른다는 것'의 의미와 분류

- '모름'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을까요? '모름'의 종류와 그 의미상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조금 디테일하게 해봅시다. 일상용어로는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만약 출제자가 2023학년도 수능 L그래프 지문처럼, 일상용어가 아니라 학문용어로 특정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할 것을(일상에서의 비례라면 X증가할 때 Y증가하는 것이겠지만, 0.75제곱 비례랑 그냥 비례는 다르게 해석할 것을) 요구했을 때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번 아래와 같은 생각들도 해보세요. 다른 상황에서의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훈련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아래의 설명에 대해 반박하여 다른 식으로 모름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구분인지 비판적으로 고민해보시되, 화내고 싸우진 마세요.

#### 1. 무지(Ignorance) : 모르는

##### 1.1. 오류(Error) : 틀려서, 모르는

-1.1.1. 왜곡(Distortion) : 어긋나서, 틀려서, 모르는

--1.1.1.1. 혼동(Confusion) : A인지 B인지 헷갈려서, 어긋나서, 틀려서, 모르는

--1.1.1.2. 부정확성(Inaccuracy) : A를 B라고 해서, 어긋나서, 틀려서, 모르는

-1.1.2. 불완전성(Incompleteness) : 완전하지 않아서, 틀려서, 모르는

--1.1.2.1. 불확실성(Uncertainty) : 존재는 분명 하는데 정해져있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서, 틀려서, 모르는

---1.1.2.1.1. 애매(Vagueness) : 분명하지 않아서, 불확실해서, 완전하지 않아서, 틀려서, 모르는

----1.1.2.1.1.1. 흐릿(Fuzziness) : 경계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sup>1)</sup>, 분명하지 않아서, 불확실해서, 불완전해서, 틀려서, 모르는

----1.1.2.1.1.2. 불분명(Non-specify) :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sup>2)</sup>, 분명하지 않아서, 불확실해서, 불완전해서, 틀려서, 모르는

---1.1.2.1.2. 확률(Probability) : 일어날 확률이 있고 없어서, 불확실해서, 완전하지 않아서, 틀려서, 모르는

---1.1.2.1.3. 모호(Ambiguity) : 여러 가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서<sup>3)</sup>, 불확실해서, 불완전해서, 틀려서, 모르는

--1.1.2.2. 부재(Absence) : 존재 자체를 안해서, 완전하지 않아서, 틀려서, 모르는

##### 1.2. 비관련성(Irrelevance) : 관련이 없어서, 모르는

-1.2.1. 무관심(Untopicality) : 관심사가 아니라서, 관련이 없어서, 모르는

-1.2.2. 금기(Taboo) : 알면 안 되는 거라서, (관련이 없게 하려다 보니) 관련 없어(져)서, 모르는

-1.2.3. 결정불가(Undecidability) : 애초에 정할 수 없는 거라서, 관련이 없어서, 모르는

※ 석승훈 저, [위험한 위험 - 위험학으로의 초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04.05 참조

1) 즐겁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2) 유럽에 갔는데 유럽 어디 갔다는 건지

3) 눈이 eye인지 snow인지 중의적

+ 가능세계(다중세계)론. 똑같은 시간에 기차를 타도 탈선으로 늦는 세계가 있고. 잘 도착하는 세계가 있고



## #55 비문학

---

### [지문]

‘나다1’은 무려 31가지의 다양한 뜻을 지닌 다의어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뜻들이 있다.

1. 「...에」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
2. 「...에」 어떤 사물에 구멍, 자국 따위의 형체 변화가 생기거나 작용에 이상이 일어나다.
3. 「...에, ...에서」 산물이나 광물 따위가 산출되다.
4. 「...에/에게」 구하던 대상이 나타나다.
5. 「...에서/에게서」 소리, 냄새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다.
6. 「...이」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7. 「...이」 맛이 생기다.
8. 「...이」 밖으로 나오거나 나가다.
9. (동사 뒤에서 ‘-고 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 [문제] 위 의미가 사용된 예문을 연결지어보세요.

정답

- ㉠ 조미료를 잘 써야 음식이 더욱 맛이 난다.  
-
  - ㉡ 청국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난다.  
-
  - ㉢ 양말에 구멍이 나다.  
-
  - ㉣ 아이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다.  
-
  - ㉤ 어제 과음을 했더니 여드름이 났다.  
-
  - ㉥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  
-
  - ㉦ 이 지역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금이 난다.  
-
  - ㉧ 중소기업에 취직 자리가 나서 연락을 해 보았다.  
-
  - ㉨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

## #55 정답 및 해설

---

### [정답]

#### 출제요소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숲(~이, ~에, ~고 나다 등 문법 형식 활용)과 나무(단어의 의미)

㉠ 조미료를 잘 써야 음식이 더욱 맛이 난다.

- 7. 「...이」 맛이 생긴다.

㉡ 청국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난다.

- 5. 「...에서/에게서」 소리, 냄새 따위가 밖으로 드러난다.

㉢ 양말에 구멍이 나다.

- 2. 「...에」어떤 사물에 구멍, 자국 따위의 형체 변화가 생기거나 작용에 이상이 일어난다.

㉣ 아이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다.

- 9. (동사 뒤에서 ‘-고 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 어제 과음을 했더니 여드름이 났다.

- 1. 「...에」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

㉥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

- 8. 「...이」밖으로 나오거나 나가다.

㉦ 이 지역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금이 난다.

- 3. 「...에, ...에서」산물이나 광물 따위가 산출되다.

㉧ 중소기업에 취직 자리가 나서 연락을 해 보았다.

- 4. 「...에/에게」 구하던 대상이 나타난다.

㉨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6. 「...이」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난다.

# #56 문학 2023 고3 3모 이대봉전 33번

## [보기]

「이대봉전」에는 여자 주인공인 장애황과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서사가 각각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두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장애황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과 이대봉이 흥노왕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을 통해 잘 드러난다. 두 군담의 서사는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면서 남녀 주인공의 특성을 나타내어 두 주인공의 대등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지문]

장 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이윽고 ㉠일색이 저물께 이르러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夢事)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 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들거늘, 축날의 흥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체하다가 가만히 ㉡운곡에 들어가 군사를 쉬게 하고 동정을 살피니, 축날이 과연 기병을 거느려 원수의 뒤를 따라 운곡을 지나거늘, 원수가 재촉하여 축날의 추격 병을 급습해 죽이고 급히 ㉢반운산에 들어가 매복하니라.

이때 축날이 원수를 따라 동편에 이르니,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고각함성이 진동하며 화살이 비 오듯 하니, 축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접전치 아니하고 스스로 요란하여 죽는 자가 태반이요, 축날도 또한 가슴을 맞고 외쳐 왈,

“굴막대는 나를 모르난다?”

하되,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고 급습해 죽이니, 축날의 군사가 심분 위태한지라. 축날이 견디지 못하여 황망히 남은 군사를 거느려 평구로 달아나다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 남은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십여 명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려 하다가, 운곡에 장 원수의 군사가 매복하였다 하여 협로로 들어 반운산 좌편으로 향하여 가더니, 원수의 복병이 내달아 적장 축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참사검을 들고 대호 왈,

“축날 적자(賊子)\*야! 간계로 나를 해하려다가 네 꾀에 너의 군사가 패몰하였으니, 무삼 면목으로 너의 왕을 보려 하난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네 죄를 속(贖)하라.”

- 작자미상, [이대봉전]

\*적자 : 불충한 사람

## [문제] 33번 ㉠, ㉡에 주목하여 [지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 원수는 ㉠에 이르러서야 축날의 간계를 간파했지만 ㉡에서 축날과 싸워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 ② 장 원수의 군사들이 ㉠에 있다가 ㉡로 간 것을 축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 ③ 장 원수는 ㉠에서 축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에서 축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 ④ 장 원수는 ㉠로 축날의 군사들을 유인하여 ㉡로 축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 ⑤ 장 원수의 군사들을 축날의 군사들이 ㉠에서 ㉡로 뒤쫓아오므로써 축날의 군사들이 굴막대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 2023년 고3 3월 모의고사 31~34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56 정답 및 해설

## [지문]

장 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이윽고 ㉠일색이 저 물결에 이르러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夢事)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 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들거늘, 촉날의 흉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체하다가 가만히 ㉡운곡에 들어가 군사를 쉬게 하고 동정을 살피니, 촉날이 과연 기병을 거느려 원수의 뒤를 따라 운곡을 지나거늘, 원수가 재촉하여 촉날의 추격 병을 급습해 죽이고 급히 ㉢반운산에 들어가 매복하니라.

이때 촉날이 원수를 따라 동편에 이르니,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고각함성이 진동하며 화살이 비 오듯 하니, 촉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접전치 아니하고 스스로 요란하여 죽는 자가 태반이요, 촉날도 또한 가슴을 맞고 외쳐 왈,

“굴막대는 나를 모르난다?”

하되,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고 급습해 죽이니, 촉날의 군사가 십분 위태한지라. 촉날이 견디지 못하여 황망히 남은 군사를 거느려 평구로 달아나다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 남은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십여 명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려 하다가, 운곡에 장 원수의 군사가 매복하였다 하여 협로로 들어 반운산 좌편으로 향하여 가더니, 원수의 복병이 내달아 적장 촉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참사검을 들고 대호 왈,

“촉날 적자(賊子)\*야! 간계로 나를 해하려다가 네 꺾에 너의 군사가 패몰하였으니, 무삼 면목으로 너의 왕을 보려 하난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네 죄를 속(贖)하라.”

- 작자미상, [이대봉전]

## [현장독해]

- [보기]는 결국 이대봉 장애항 둘이 별개 공간에서 각각 활약하여 흉노왕도 선우도 이긴다. 둘이 대등하다.

- 꿈이랑 물결로 촉날의 흉계 눈치챈

- 운곡에서 쉬고

- 개이득

- 다시 반운산에 매복

- ‘2인칭 의문형 나다’에서 주어 ‘너’ 생략

= ‘굴막대 (너) 나 모르냐? 정산차려 우리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서로 죽인거네.(문법을 잘 해야 문학도 잘 한다)

- 어...? 여긴? 아까 장 원수 매복한...? 이러면...?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정답] ②번

① 장 원수는 ㉣에 이르러서야 촉날의 간계를 간파했지만 ㉤에서 촉날과 싸워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 이르기 전에 눈치채고, ㉣로 들어간거죠. (단순사실판단)

② 장 원수의 군사들이 ㉣에 있다가 ㉤로 간 것을 촉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 그래서 ㉤에서 장원수가 참교육. 정답.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이 나오면 넘어간다. 확실한 정답이 나오면 그 선택지를 두 번 봐서 실수한건 아닌지 체크한다]

③ 장 원수는 ㉣에서 촉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에서 촉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 ‘기병 공격’이 아니라 ‘서로 죽인 것’을 언급한 겁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④ 장 원수는 ㉣로 촉날의 군사들을 유인하여 ㉤로 촉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 기병들을 본인이 의도해서 유인했다는 앞 진술도 애매하지만, 뒤에 ㉤로 가지 못하게 한 게 아니며, 오히려 와줘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죠.

⑤ 장 원수의 군사들을 촉날의 군사들이 ㉣에서 ㉤로 뒤쫓아옴으로써 촉날의 군사들이 굴막대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 기병들은 ㉣운산 왔다가 다 저세상 가서, ㉤로 못 왔습니다. (단순사실판단)

## #57 비문학 2023 고3 3모 '모방과 mim' 5번

### [지문]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인데,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따라 하게 한 실험이 있다.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느냐 여부뿐이다.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다.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위 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는 시범자를 관찰한다.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어린 침팬지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 한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 먹이를 획득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불투명하든 투명하든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 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 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거울 뉴런은 신경 세포의 일종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상이하다. 거울 뉴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고,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다.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즉 투명 상자의 위 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해당 행동을 따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 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 [문제]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가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아이들의 거울뉴런은 어린 침팬지들의 거울뉴런과 달리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
- ④ ~
- ⑤ ~

# #57 정답 및 해설

## [지문]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인데,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따라 하게 한 실험이 있다.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느냐 여부뿐이다.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다.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위 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는 시범자를 관찰한다.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어린 침팬지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 한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 먹이를 획득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불투명하든 투명하든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 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 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거울 뉴런은 신경 세포의 일종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상이하다. 거울 뉴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고,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다.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즉 투명 상자의 위 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해당 행동을 따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 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 [현장독해]

- 모방 =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 복제
- 관찰->학습->모방
- 인간 vs 고등 지능 동물 [좋은 독해 습관 : 양자비교]
  
-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냐 v 아니냐(불투명하냐)
  - [좋은 독해 습관 : 반대적 사고, 양자비교]
  - + '뿐' [좋은 독해 습관 : 한정표현 주의]
  
- 침팬지들 불투명 상자는 그대로 모방, 투명 상자는 아니라는데 왜지?[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가 답 안해주고 넘어간 것 주의]
  - > 아~ 투명 상자는 다 봤을 테니까, 불필요한 행동 알아서 제거 vs 아이들은 투명, 불투명 상관없이 그대로 모방.
  - + '침팬지+투명'이 혼자 튀다. 주의하자
  
- 관찰 = 직접 행동 [좋은 독해 습관 : 습관적 단어반복]
  
- 활성화 정도
  - : 행동에 대한 관찰 <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 모방
  - [좋은 독해 습관 : 3자비교]
- 행동 목표가 분명하면 침팬지나 애들이나 모두에게서 활성화
  - [좋은 독해 습관 : 공통점 찾기]
- 목표 관찰이 어려우면, 인간은 활성화, 침팬지는 활성화 안됨
  -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주의]
- 투명 상자의 위 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 = 투명이라 다 봤는데, 막대기로 위에 왜 치는지(행동목표) 모름
- 인간은 행동 목표, 방식, 의도 다 할 줄 압.
  -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주의]
  
- 인간은 비효율적이어도 있는 그대로 모방
- 이러한 차이 = 침팬지는 행동 목표를 모르면 안함. 인간은 몰라도 함. [좋은 독해 습관 : 차이점 주의]

[정답] ②번

**출제요소**

- 비슷한 표현끼리 연결(동어반복) > 2~3개 그룹으로 묶어(그룹핑) ->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비교)
- '달리' 문제 쪼개서 원형파악

- 정답인 ②번은 쉬웠습니다. '달리'문제 유형을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으로 쪼개서 풀어보시면 남들보다 더 쉽고 빨리 풀었을 것입니다. 우선, '~와 달리'부분을 빼고 판단해보기로 했었죠.

: '아이들의 거울뉴런은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선택지)

vs'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3문단 마지막 문장)

★ 다만, ①번이 헛갈렸을 수 있습니다.

- 애매하고 모르겠다면, 일단 넘어간 후, ②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리니까 정답은 ②번 짚는 현실적 풀이로 잘 푸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애매하면 넘어가자]

-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선택지) = '투명 상자로 봤는데, 왜 처음에 위에를 막대기로 치는 건지 모르면'이라고 됐으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선택지) (이상적 풀이 : 다수론)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근데 이걸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선택지)' = '불투명 상자라서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으로 잘못 동어반복한 순간 ①번이 틀려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행동 목표'는 그저 '먹이를 얻으려고'로 대충 합리화시켜 버리면, '어? 불투명 상자 봤을 때는, 불필요한 행동 한다는 거니까 ① 틀리네'로 생각해서 ①번 짚는 겁니다.

+ 지문 독해 당시에, '행동 목표'가 무엇의 동어반복인지를 생각해보고 넘어갔어야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위 현장 독해처럼 행동 목표가 '위 칸과 관련된 행동 목표'이므로 '상자 위를 막대기로 치는 이유'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실수를 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독해 습관이 남들은 다 맞추는 문제에서 나만 힘들어지지 않게끔 해줍니다.



## #58 문학 2023 고3 3모 '현대시' 28번

### [보기]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지문]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 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정지용, 「장수산1」 -

\*벌목정정: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하고 나는 큰 소리.

\*울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 [문제]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좃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58 정답 및 해설

## [보기]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지문]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 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정지용, 「장수산1」 -

\*벌목정정: 깊은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쩡쩡하고 나는 큰소리.  
\*울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 [문제]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좃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현장독해]

[좋은 독해 습관 : [보기]를 지문보다 먼저 본다]

- 문학은 [보기]를 지문보다 먼저 보면서, 출제자의 해석 방향을 찾고, [보기]-지문 동어반복할 소재들 미리 파악한다.

- 소리를 활용해서 고요 부각

[좋은 독해 습관 : 출제자가 제시한 해석 방향 파악]

- 시각, 청각 등등 찾자

- 분위기와 화자 내면 지문에서 확인하자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거리 파악]

- 나무 베는 소리 = [보기] 소리를 활용, 청각적 이미지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고요 나왔다. 새도 안 울고, 고요한데, 나무 베는 소리'만' 나니까 고요 부각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흰색의 시각적 이미지 나왔네, [보기] 감각적 이미지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6판 다 졌는데도 웃는 건 해탈

- 내음새 후각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시름이 고요에 흔들린다 = [보기] 내면세계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견디겠다네. 시련, 고요 속 인내가 주제의식 및 화자태도.

[좋은 독해 습관 : 주제의식 파악]

## [정답] ①번

① [보기]에 아름답리 큰 솔 역할은 베어지는 소리를 활용해서 고요 부각이라고 했음.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속성 언급 없음.

[좋은 풀이 습관 :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 심지어 자연 희생은 시련 속, 고요 속 인내라는 주제의식과도 관련 없어 보임.

[좋은 풀이 습관 : 주제의식(태산)에서 벗어나면 틀릴 확률 높음]

+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선택지가 나오면, 그 선택지가 정답인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음 선택지들은 보지 않고 넘어간다.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④ '시름이' 심하게 흔들린다니까(지문), [보기]의 내면세계(보기) 중,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내적 고뇌(선택지)라고 할 수 있지.

[좋은 풀이 습관 : [보기]-지문-선택지 3개 동어반복]

+ 바람이 일면 = 흔들린다 <-> 바람이 일지 않는. 반대니까 대비

[좋은 풀이 습관 : 반대적 사고]

[지문]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조사나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객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사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ㄱ.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할머니께 여쭙러 가거라.
- ㄴ. (점원이 손님에게)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 ㄷ. (동생이 형님에게) 저 기다리지 마시고 형님은 먼저 주무십시오.

[문제] ㄱ ~ 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ㄱ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② ㄷ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ㄱ과 ㄴ에서는 모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④ ㄴ과 ㄷ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조사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ㄱ ~ ㄷ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59 정답 및 해설

## [지문]

주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조사나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객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사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ㄱ.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할머니께 여쭙러 가거라.
- ㄴ. (점원이 손님에게)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 ㄷ. (동생이 형님에게) 저 기다리지 마시고 형님은 먼저 주무십시오.

## [문제] ㄱ ~ 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ㄱ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② ㄷ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ㄱ과 ㄴ에서는 모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④ ㄴ과 ㄷ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조사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ㄱ ~ ㄷ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 [현장독해]

- 주체높임,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 주체, 선어말 어미, 조사 특수어휘 확인
- 상대높임, 청자 높임 낮춤, 종결어미
- 객체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 객체, 조사 특수어휘

**[좋은 독해 습관 : 잘 아는 친숙한 내용일지라도, 겸손하게, 출제자가 함정 파고 재정의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읽는다]**

## [정답] : ①

-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 객체 : 할머니께 / 조사 : 께 / 특수한 어휘 : 여쭙러 / 정답.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정답이 나오면 넘어가서 시간을 아끼고 압도적으로 이긴다, 다른 선택지도 살펴볼 게 아니라 정답의 확실성이 높은 선택지를 차라리 2번 점검한다]**

★ **출제 요소 : 출제자는 자신이 애써 적은 글을 대충 읽는, 안 읽는, 오만방자한 수험생을 반드시 벌준다.**

+ ③ 주어 : ㄱ 네가, ㄴ 제가 / 지시하는 대상 : ㄱ 할머니께, ㄴ 손님을 / 특수한 어휘 : ㄱ 여쭙러, ㄴ 모시고  
: 이렇게 푼다면 참 그럴듯해 보이고, 맞아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지시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자기 상식에 맞춰 풀었기 때문에** 맞아 보이는 겁니다.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주어가(주체) / 지시하는 대상(객체) 이렇게 평소 문제 풀던 대로 쪼개고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동어반복 하라고** 했습니다. 출제자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체를 객체로 착각하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주체, 객체, 상대 다 알지~ 지문 안 읽어~'라고 생각한 오만방자한 학생들을 벌 준겁니다. 이렇게 벌 받지 않으려면, 아무리 아는 것이라도 읽기는 해야 합니다. 겸손합시다.

# #60 문학 2023 고2 3모 '현대시' 45번

## [지문]

[A]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별을 쪼이고 있다. 굽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별을 채워넣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B]	마른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C]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D]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별에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E]	오오, 얼마 만에 환해져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 김기택, 「봄날」

## [문제]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에서 화자는 '햇별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행동을 '꼼꼼하게 햇별을 채워넣'는 것으로 구체화하면서 할머니들의 숨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군.
- [B]의 '잘만 하면'이라는 시구는 '아지랑이'뿐만 아니라 '뽀얀 젖살'까지 상상하게 되었음을 부각하여 할머니들의 변화에 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군.
- [C]에서 화자는 '쏟아지는 빛'이 할머니들을 '모두 눈부신'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여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마저 담고자 하는 할머니들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군.
- [D]의 화자는 '푸른 망울들'이 터지는 것을 보고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 할머니들에 주목하여 봄의 생명력에 기뻐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군.
- [E]에서 할머니들이 '가끔 눈을 비비'는 것을 보고 화자는 이를 '한나절 한눈을 팔'던 '환한 빛'으로 인해 '환한 날'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군.

# #60 정답 및 해설

## [지문]

[A]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별을 쪼이고 있다. 굽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별을 채워넣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B]	마른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C]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D]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별에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E]	오오, 얼마 만에 환해져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 김기택, 「봄날」

## [문제]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에서 화자는 '햇별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행동을 '꼼꼼하게 햇별을 채워넣'는 것으로 구체화하면서 할머니들의 모습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군.
- [B]의 '잘만 하면'이라는 시구는 '아지랑이'뿐만 아니라 '뽀얀 젖살'까지 상상하게 되었음을 부각하여 할머니들의 변화에 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군.
- [C]에서 화자는 '쏟아지는 빛'이 할머니들을 '모두 눈부신'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여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마저 담고자 하는 할머니들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군.
- [D]의 화자는 '푸른 망울들'이 터지는 것을 보고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 할머니들에 주목하여 봄의 생명력에 기뻐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군.
- [E]에서 할머니들이 '가끔 눈을 비비'는 것을 보고 화자는 이를 '한나절 한눈을 팔'던 '환한 빛'으로 인해 '환한 날'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군.

## [현장독해]

- 제목 [봄날], 할머니들=시적 대상, 봄날에 태닝 중  
[좋은 독해 습관 : 제목과 시내용 연관짓기]

- 봄에 힐링하네.

- 뽀얏다, 오를 것 같다. 긍정적인듯?

- 직유법

- [A]앞부분과 비슷한 내용이네. 할머니들이 빛을 직접 거두시네.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할머니들 행복하시네. 긍정적.

- 며칠 안 된다 -> 있을 때 즐기자. 설의적 표현.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습관적으로 평서형으로 바꾸어 그 의도를 파악한다]

- 여유로워~

\* [보기]가 없으므로 본인의 문학지식을 이용하여 현장독해한 후, 선택지를 보면서 사후적으로 동어반복하기

## [정답] ③, but ⑤?

- 구체화(선택지) = 쪼이다->채워넣고 있다(지문)

- 능동성(선택지) = 채워넣고 있다(지문)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기대(선택지) = 오를 것 같고 ~ 오를 것 같다(지문)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 할머니들의 몸에서 빛이 흘러 넘치는거니까 할머니들 눈부신 존재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뒷진술 '의지 부각(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지문 표현이 없네 [C]에는. 그나마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가 차라리 의지부각이지, '쏟아지는 빛'이 아니라.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동어반복, 없는데->있다->틀림]

- [D]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할머니들 긍정적으로 보지

- 조심스럽게 출제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한 빛'이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한눈을 파는 거죠? 단순사실판단으로 틀린 진술이네요. 뭐... 고2시험이니까... 다들 ③번 찍고 맞히고 넘어갔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지려나요? 다른 풀이 있으시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61 문법 2023 고2 3모 13번

### [보기]

셋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볶음밥'은 의미상 '볶음'과 '밥'으로 먼저 나뉜다. '볶음'은 다시 '볶-'과 '-음'으로 나뉜다. 따라서 '볶음밥'은 '(어근+접미사)+어근'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 [문제] 밑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집안일
- ② 내리막
- ③ 놀이터
- ④ 코웃음
- ⑤ 울음보

※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13번 문법 지문 참조

# #61 정답 및 해설

## [보기]

셋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볶음밥'은 의미상 '볶음'과 '밥'으로 먼저 나뉜다. '볶음'은 다시 '볶-'과 '-음'으로 나뉜다. 따라서 '볶음밥'은 '(어근+접미사)+어근'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 [문제] 밑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집안일
- ② 내리막
- ③ 놀이터
- ④ 코웃음
- ⑤ 울음보

## [현장독해]

- 직접 구성 요소 = 가장 큰 2개로 우선 쪼개서 원형파악해라
- 쪼개서 원형파악이 출제요소네.

## [정답] ③

### [출제요소] 쪼개서 원형파악

- ① { 집(명사) + 안(명사) } + 일(명사)
- ② 내리(동사 어간) + 막(명사파생접미사)
- ③ { 놀(동사 어간) + 이(명사파생접미사) } + 터(명사)
- ④ 코(명사) + { 웃(동사 어간) + 음(명사파생접미사) }
- ⑤ { 울(동사 어간) + 음(명사파생접미사) } + 보(접미사)

※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13번 문법 지문 참조

- 안 : 영어로 'in' 뜻하는 '안'은 국어로는 '명사'입니다. 영어 in이 전치사, 특히 '부사'로 쓰이다 보니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국어에서 '안'은 '명사'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같은 언어이기에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공부해나가며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별 받지 않습니다.
- 내리- : 동사 '내리다'의 어간입니다. '리'가 피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때는 더 쪼개서 원형파악을 해보세요. '내다'라는 단어의 중심의미가 '내리다'가 갖는 중심의미인 '하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 -막 :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입니다.
- -터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리'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 -보 :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 '그러한 특징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 ★ 어근 vs 접사

- '-막'이 '그렇게 된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거니까 명사가 아니냐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근은 '실질적인 뜻'을 가졌고, 접사는 '보충적인 뜻'을 더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실질이고 어느 정도가 보충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막, -보'는 접사라면서 '터'는 뭔데 명사냐 이거죠. 둘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지만, 결국 이 공부의 끝에는 암기가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면서, '접사처럼 보이지만 어근', '어근처럼 보이지만 접사'를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 #62 문학 2023 고2 3모 '고전시가' 31번

## [보기]

[노계가]의 작가는 전란을 체험한 후 강호에 은거하며 태평성대를 추구하고,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비록 작가의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 지향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지속성을 갖고 이어진다.

## [지문]

지팡이 짚고 바람 씌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 되었는데,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불쏘냐.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봉어회에도 놀어, 꿩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날에 뿌리는데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발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노계가」-

- \* 무회씨 때 사람, 갈천씨 때 백성 :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제왕인 무회씨와 갈천씨 때의 태평성대의 사람.
- \* 삼대일월 : 중국에서 왕도 정치가 행해졌던 하·은·주 시대.
- \* 격양가 : 중국 요 임금 때 늙은 농부가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천하가 태평하다며 불렀다는 노래.

## [문제] 지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명령형 어미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문답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선의 이동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31~34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62 정답 및 해설

## [보기]

[노계가]의 작가는 전란을 체험한 후 강호에 은거하며 태평성대를 추구하고, 일관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비록 작가의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 지향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지속성을 갖고 이어진다.

## [지문]

지팡이 짚고 바람 씌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 되었는데,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볼쏘냐.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흠족히 담아두고  
 봉어회예다 놀어, 썩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잔, 또 한잔 취토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날에 뿌리는데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삼대일월\* 비추소서.  
 영원무궁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밭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노계가」-

## [현장독해]

- 전란 / 강호은거, 태평성대
- 일관, 영속
- 방해하는 일시적 요소
- 과거현재미래로 지속성 = 영속 [지문-지문 동어반복]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을 위한 키워드 파악]
- 강호은거, 태평성대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강호 풍경 좋아. 다 하나 됨  
 [좋은 독해 습관 : 주관식 풀이. 밑줄 의미 생각해보며 읽기]
- 자연물 갈매기도 좋아 보여.
- ㉡자연물을 인간 세상 사물에 빗대어 표현
- 나 혼자 = 강호은거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태평성대. '허송' = 허+송 = 헛되이 보낸다  
 [좋은 독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 한자어 어휘력]  
 = 허송세월 [좋은 독해 습관 : 비슷한 단어 떠올리는 연상력]
- 산이니까 해산물을 없다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고쳐 의도 파악]
- ㉣ 해산물 없으니까 고기 먹겠다네. 배터지겠네.
- 봉어는...? 산계곡에서 잡았다는건가 여튼 술먹으며 태평성대.
- ㉤ 복숭아꽃이 비처럼 내린다 태평성대
- 단어 설명에 대놓고 '태평성대'  
 [좋은 독해 습관 : \*표시는 반드시 읽어 출제자 의도 파악]
- 임금 은혜 아 타어밍에 한번 나오셔야저 어서오코(관습적)
- 강호에 물러난들 = 강호은거 + 잊지 않겠다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고쳐 의도 파악]
- 북극성 = 임금 [좋은 독해 습관 : 지문-지문 동어반복]
- 크차 눈물도 한번 흘려주셔야저(관습적)
- 평생에 품은 뜻 = 일관, 영속, 지속성. [보기-지문 동어반복]
- 태평한 세상 = 태평성대
- 전란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영원히 없애달라니 [보기]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지속성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격양가 = 태평성대, 강산풍월 = 강호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 태평성대라는 '지향을 방해하는 일시적 요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서인 [보기]가 틀릴 리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임금 걱정'이 잠깐 들었다는 거려나?

[정답] ①

① 명령형 어미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이상적 풀이

: 동음이의어 '-소서6' :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하십시오'체는 상대높임법의 아주높임 격식체의 명령형.

+ '상대높임법 종결어미표' 아직도 안 외운 학생 없죠?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걸 외워서 백지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쓸 수 있어야 대한민국 1%하는 겁니다. 격식·비격식, 아주·예사·두루, 평서·의문·명령·청유·감탄, -ㅂ시오·ㅂ시다·세·자, 예시·비문 다 외우기.

★ 현실적 풀이

- 아니 근데요. '~소서'가 '하십시오'라는 상대높임법 중 아주높임의 격식체 중에서도 명령형 종결어미 '-ㅂ시오' 대신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봤고 틀려봤고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구요, 심지어 '하늘'이라는 높은 존재에게 어떻게 '명령'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선택지를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채로 ①번 맞다 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 (가)가 틀렸다. 그러니 일단 다음 선지로 넘어갔다. 근데 다른 선택지 다 봤더니 다 틀려서, 크나마 어거 찍었다. 이게 현실적 풀이죠.

② 문답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이상적 풀이 :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문답법 있지만, 이걸로 현실 비판 안한다.

- 현실적 풀이 : 위 구절이 떠오르거나 보이지 않았더라도, '현실 비판 없다, 주제의식 자체가 태평성대 영원하길 기원인데 무슨 현실 비판이냐' 틀리다 [좋은 풀이 습관 : 주제의식(태산)에서 벗어난 것은 적어도 정답은 아니다]

③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다수론 : 대조 방식으로 태도 변화 드러낸 것 없다. 처음부터 쪽 태평성대 좋다고 한다.

- 소수론 : 태도변화 있는데? 강호은거해서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면서 술 먹고 놀다가 -> 임금 걱정에 눈물 흘리다가 -> 다시 태평성대 추구. 좋다가 걱정했다가 대조적인데, 심지어 한 번 더 태평성대 추구로 돌아오는데 태도변화도 맞지.

- 반박 : 대조도 있고, 태도 변화도 있다고 치더라도, 대조를 통해서 태도 변화 드러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좋은 풀이 습관 : 하나의 선택지를 앞진술과 뒷진술로 디테일하게 쪼개서 그 둘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재반박 : 대조가 단순히 구절 표현 하나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 상황적 대조도 대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2니까 넘어가자. 교3 수능 때는 논란 없도록 잘 낼 것아다

④ 시선의 이동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 '물보고 하늘보고 물가 갈매기보고 산꽃보고 병풍이라고 하고 버들보고 초록 장막이라고 하고, 복숭아꽃 붉은 비처럼 내리는 것도 보고' 시선의 이동을 통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죠. 너무 맞습니다. 근데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하니 틀린 진술이죠.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 끝에 부정어구 주의. 선택지를 끝까지 꼼꼼하게 봐서 별 안 받기]

⑤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초월적 공간 없습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 '하늘'은 기원의 대상이지 공간이 아닙니다.

- 화자가 현재 은거하는 자연은 현실 공간이죠. 현실이 아무리 좋고 태평한 세상(지문)이라고 하더라도(상대적 변화), 그게 초월적 공간(절대적 차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풀이 습관 :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엄밀히 구분한다]

★ 좋은 풀이 습관 : 실수를 돌이키는 매커니즘. ①②③④가 다 틀려도 ⑤번도 틀릴 수 있다.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보자 ★

38% 학생들이 ⑤번이 맞는 진술이라고 답해서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문제를 풀 당시, 본인의 사고 과정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①②③④번이 대충 다 틀려 보이니까, ⑤번이 맞겠거니하고 적당히 생각해서 답을 찍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서 '명석한 나는 ①②③④에서 실수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⑤번으로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억누르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⑤번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⑤번이 틀리다고 할 수 있어야만, '어 그러면 앞에 맞는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혹시 '소서'가 겉보기에도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명령형 어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남들 다 틀리는 문제를 나만 맞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좋은 풀이 습관 : 잘 안 풀리는 문제는, 한번만 더 고민해보고, 안되면 일단 넘어가서 시간과 멘탈과 페이스를 지킨다 ★

이 문제 틀려도 됩니다. 이 문제 틀려도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집착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의 멘탈을 박살내고, 페이스를 잃었다면 이번 시험 망쳤을 겁니다. 수학처럼, 안 풀리는 건 넘어가서 받을 점수부터 받는 지혜 갖추기.



## #63 작문 2023 고2 3모 9번

### [지문]

세계 의류 생산량은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저가의 의류를 짧은 주기로 대량 생산·소비하는 패스트 패션 산업의 영향으로 2015년의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의류는 신체를 보호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지만, 의류의 생산과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 의류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며 확대된 의류 산업은 이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 염색에 사용되는 다양한 염료와 표백제는 땅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 의류의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 오염도 상당하다. 세탁할 때 의류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다. 또한 폐기되는 의류 중 겨우 13%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조각·매립되어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의류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 전반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류 산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천연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의류 소재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보기] 전문가 인터뷰

“옷의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져서 한 세기에서 10년, 다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등장한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1~2주 간격으로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행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류의 과잉 생산으로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가령 폴리에스테르의 생산에는 매년 3억 4,200만 배럴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 [문제] 보기 활용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원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류 유행 주기의 변화를 1문단에 추가한다.
- ② 의류 산업의 확대에 의한 문제점을 환경 오염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한다.
- ③ ~
- ④ ~
- ⑤ ~

※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8~10번 작문 지문 참조

# #63 정답 및 해설

## [지문]

세계 의류 생산량은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저가의 의류를 짧은 주기로 대량 생산·소비하는 패스트 패션 산업의 영향으로 2015년의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의류는 신체를 보호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지만, 의류의 생산과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 의류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며 확대된 의류 산업은 이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은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 염색에 사용되는 다양한 염료와 표백제는 땅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 의류의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 오염도 상당하다. 세탁할 때 의류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다. 또한 폐기되는 의류 중 겨우 13%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조각·매립되어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의류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 전반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류 산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천연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의류 소재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보기] 전문가 인터뷰

“옷의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져서 한 세기에서 10년, 다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등장한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1~2주 간격으로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행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류의 과잉 생산으로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가령 폴리에스테르의 생산에는 매년 3억 4,200만 배럴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 [현장독해]

- 세계 의류 생산량 : 키워드 파악
- 패스트패션
- 비례 관계. 패스트패션 -> 의류생산량 증가
- 장단점

-> 의류 산업 환경 오염으로 키워드 바뀜

- 생산 대기오염
- 염색 수질오염
- 사용폐기 환경오염
- 세탁 바다오염

- 폐기 조각매립 대기로양오염

-> 다양한 환경 오염 종류 열거했네

- 배출제한
- 천연섬유 의무화
- 의류 소재

-> 해결책 제시했네

[좋은 독해 습관 : 막힘없이 쪽쪽 읽고, 문단 핵심 정리]

- 1문단 패스트패션이 문제다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의류 과잉 생산이 자원 소모. 환경오염에 자원소모까지

[좋은 독해 습관 : 보기-지문 동어반복]

※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8~10번 작문 지문 참조

## [정답] ②

①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원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류 유행 주기의 변화를 1문단에 추가한다.

- 생산량 급속 증가(선택지) = 패스트 패션 산업 영향으로 ~ 약 두 배 증가(지문),
- 원인(선택지) = 의류 유행 주기 짧아짐(선택지+보기)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보기 3자 동어반복]

② 의류 산업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환경 오염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한다.

- 환경오염에 자원낭비까지 한다는 게 보기니까 '한정'이 틀림.

[좋은 풀이 습관 : 주관식으로 풀기. 문제를 미리 보지조차 않았지만, [보기] 읽으면서 [보기]-지문 동어반복으로 문제를 풀어버린]

③ [좋은 풀이 습관 :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정답이 나오면 다음 선택지까지 보기 보다는, 정답이라 생각한 선택지에서 실수한 건 없는지 한번만 더 점검하고 넘어가기. 확신성이 매우매우 높으면 이조차도 생략하여 시간 아끼기]

## #64 문학 2023 고2 3모 '고전소설' 41번

### [지문]

[앞부분의 내용] 이생은 최씨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최씨집 담장을 넘나들지만, 부모의 반대로 결국 영남 울주로 보내진다. 최씨는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이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났다. 최씨의 부모는 딸의 글 상자를 들추어 보다 이생에 대한 최씨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생에 대한 최씨의 죽음까지 각오한 사랑을 알게 된 부모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하였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품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한 시대의 벼들이 모두 그 덕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문제]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생의 아버지와 최씨 부친 모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 ② 이생의 아버지와 최씨 부친 모두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씨 부친은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며, 최씨 부친은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⑤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내세우며, 최씨 부친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39~42번 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 #64 정답 및 해설

## [지문]

[앞부분의 내용] 이생은 최씨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최씨집 담장을 넘나들지만, 부모의 반대로 결국 영남 울주로 보내진다. 최씨는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이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났다. 최씨의 부모는 딸의 글 상자를 들추어 보다 이생에 대한 최씨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생에 대한 최씨의 죽음까지 각오한 사랑을 알게 된 부모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하였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품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한 시대의 벼들이 모두 그 맥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문제]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생의 아버지와 최씨 부친 모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 ② 이생의 아버지와 최씨 부친 모두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씨 부친은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며, 최씨 부친은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⑤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내세우며, 최씨 부친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현장독해]

- 이생과 최씨의 사랑, 이별
- 그리움
- 부모 눈치 챔
- 최씨 부모는 결혼시켜주려고 하네

- 이생이 실수했지만, 현재 잘났고, 미래에 잘될 것이다. 준비하면 딱상한다
- 서둘러 결혼하는 것 반대.

- 주변 이생 칭찬
- 연못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 끝내 잘될 것
- [좋은 독해 습관 :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꾸어 표현]
- 나도 잘될 거 아니까 빨리 결혼시키자
- 이생 아빠는 미래파(A그룹) vs 최씨 부친은 현재파(B그룹)
- [좋은 독해 습관 : 두 그룹 간 차이점 정리]

## [정답] ②

- ① 구체적인 사건(선택지)와 연결되는 표현이 지문에 없습니다.
- [좋은 풀이 습관 : 선택지-지문 연결, 없는 걸 있다고 하면 틀림]
- ②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선택지)
- = 장원급제(지문) (이생 아버지)
- =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지문) (최씨 부친)
- ②정답 [설의적 표현의 속의미를 잘 파악한 좋은 독해 습관의 힘]
- ③ [정답이 나오면 넘어간다 : 좋은 풀이 습관]

★ ③④⑤번 병렬구문 선택지 끊어 읽기 주의 ★

★ ③④⑤번 병렬구문 선택지 끊어 읽기 주의 ★

③④⑤번은 영어의 병렬구문처럼 분석해서 풀어야 합니다. 세 선택지 모두, 'A는 ~하며, B는 ~하며 C하고 있다.'라는 구조인데요. 아래 1번, 2번 중 어떻게 끊어 읽어야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은 걸까요?

1번 : A는 ~한다. + B는 ~하며 C하고 있다. vs 2번 : A는 ~하며 C하고 있다 + B는 ~하며 C하고 있다

정답은 2번처럼 끊어 읽어야 하며, 핵심은 'C하고 있다'가 앞진술 'A는 ~하며'에도 병렬적으로 묶여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절, 전치사구 등을 넣어서 둘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려 놓아, 주어-동사 수일치 등을 헛갈리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병렬구문 A and B,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등에서 A와 B의 문법적 형식이 맞아야 하며, 주변의 다른 의미들은 A B 모두 공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진술 판단 할 때 뒤에 있는 공통진술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씨 부친은 서두를 것을 요청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이 선택지를 35%가 맞다고 생각해서 틀렸습니다. 앞진술이 애매했을 수 있는데, 위에처럼 제대로 끊어 읽었다면 적어도 ③번을 답으로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야지,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만 판단하니까 ③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다수론)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결국 자신을 포함한 가문 전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소수론)이므로,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 이때,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까지 확인하셨다면 적어도 ③번을 안 찍었을 수는 있었습니다. 결혼을 '서둘러서' 하기는 싫다고 했을 뿐, 최씨 부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수론)

+ 물론, 둘 사이의 결혼에 동의하는 최씨 부친의 태도와 당장의 결혼에 반대하는 이생 아버지의 태도는 분명 대조적(소수론)입니다. 그러나 둘의 의견이 대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쪽이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처럼, ③번은 앞진술에도 뒷진술에도 공통진술에도 다수론과 소수론이 갈리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적어도 답은 아닐거라 생각했기를 바랍니다. 문학 문제에서 해석상의 애매함이 있는 선택지는, 심지어 그런 애매한 진술이 2개나 있는 선택지는 적어도 정답은 아닙니다.

④ 이생의 아버지는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며, 최씨 부친은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서둘러 결혼시키는 것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맞죠.

- 이생이 얻게 될 이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 두 번이나 없는 것을 있다고 했으므로 정답의 확신성이 높게 틀렸습니다. 둘을 결혼시키자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맞습니.

⑤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내세우며, 최씨 부친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학문에 정통하고 품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지문) = 이생에 대한 아버지의 주관적 평가이며, 이생에 대한 긍정적 '평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평판(評判)'은 개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평입니다. [좋은 기초 습관 : 어휘력]

- 이생의 아버지가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도 않죠. 결혼시키자는 최씨 부친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 #0 나가기 전에

### 제작 방향성

#### 문제나 풀자

저는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 등을 칼럼 형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에 지쳐 버렸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들을 그저 소개만 해서는, 아무리 쉽고 재밌게 얘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많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그 실질적 행동 방법. 그 실천 지향적인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국어 고수들의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진 풀이를, 결국 학생 스스로가 시험 순간에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 좋은 방법들을 그저 소개만 하고 있을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문제를 푸는 학생조차도, '좋은 자극, 좋은 긴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고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난도·최다오답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문제, 누구나 한번쯤은 틀려가며 배우는 문제, **좋은 습관대로 푼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풀어봤는데 틀려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해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시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나으리라 믿습니다.

#### 도전하여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자료의 문제들은, 국어 기초 개념, 즉 '고전 어휘 및 고전 독해법'과 '문법 개념' 등을 1회독 한 학생.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해황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과 같은 **기초 개념서를 1회독 이상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수업 설명회에서도 학생·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들을 함께 풉니다. 수업 커리큘럼·계획서·분석 자료를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눈앞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큰 공감을 얻더군요. 중학생·고1·고2·고3·N수·학부모 등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이 자료는 내가 풀 게 아니라고 편견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마인드로, 해당 자료의 문제들을 다 맞히고 막힘없이 설명해내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 스스로 설명해보자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풀고 해설 읽는 거죠. 다만, 남들보다 질적으로 높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정답과 근거를 설명해본 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안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해내게 될 겁니다.

굳이 이 자료를 복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습관들과 방법들을 평소 국어 문제 풀 때 적용해보려고 하세요. 또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해설에서 공감 가는 부분, 스스로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몇 번이고 다시 복습하면 더욱 좋기야 하겠지요. 반복의 지루함을 인내하고 복습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어색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마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복습 잘 못하거든요. 복습만 잘 해도 대한민국 90%는 이길 수 있습니다.

#### 색다르게 해보자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을 풀다 지쳐 토할 것 같을 때, 공부하기는 너무 싫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들춰보고 또 몇 문제 풀어 보세요. 문제도 유형도 영역도 형식도 평소 풀던 것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인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좋은 독해 습관과 좋은 풀이 습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더라